

2026 태국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가. 정부 현황	07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7
3. 주요 이슈 Pick	12
가. 정치 전환 국면	12
나. 글로벌 리스크와 저성장 지속	14
다. 인프라 개발과 신성장 산업 육성	15
라. 태국의 전기차 중심 산업 구조 전환	17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1
가. 시장 특징	21
나. 무역	24
다. 산업	28
라. 투자	32
2. 유망 산업	37
가. 전기차(BEV)·배터리·EV부품	37
나. 데이터센터·클라우드·디지털 인프라	38
3. 협력 기회	39
가. 통상·G2G	39
나. 프로젝트	41
다. 공급망	44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6
2. 진출전략	4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9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64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66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7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3. 주요 이슈 Pick	12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26년 태국 경제 1.6~1.8%대 성장 전망

- 동부경제회랑(EEC)·첨단산업 육성으로 투자심리 회복 및 FDI 개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관세 협상 결렬 시 성장률 0.4%까지 급락 가능성과 농업·축산업 취약성이 부진 요인

* EEC(Eastern Economic Corridor, 동부경제회랑) : 태국 정부가 첨단 제조업 및 혁신산업 중심지로 육성 중인 전략경제지대로, 촌부리·라용·차츄사오 등 동부 3개 주를 중심으로 스마트산업단지, 인프라, 물류 허브 개발이 집중되고 있음.

□ (호재 요인) 투자심리 회복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개선 가능성

- 태국투자청(BOI)이 추진하는 동부경제회랑(EEC)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평가(EV, 전자, 데이터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 잠재력이 존재)
- 세계은행은 투자심리가 개선될 경우, '26년 GDP 성장률이 1.8%까지 회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5년 태국 경제전망 : 태국 중앙은행(2.3%), 세계은행(1.8%), IMF(1.8%)
- '26년 태국 경제전망 : 태국 중앙은행(1.7%), 세계은행(1.7%), IMF(1.6%)

□ (부진 요인) 수출 압박과 미국 관세 리스크

- SCB 경제정보센터(EIC)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26년에 경제 성장률이 0.4%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
- 태국이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받을 경우 돼지고기, 가금류, 옥수수를 포함한 농업 및 축산업이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e	2026년 ^f
인구	백만 명	69.6	69.8	70.0	70.1	70.2	70.3	70.3	70.4
명목 GDP	십억 달러	544.0	500.5	506.2	495.7	515.9	526.5	558.6	561.5
1인당 명목 GDP	달러	7,812.9	7,169.9	7,236.4	7,072.7	7,350.9	7,493.2	7,942.3	7,979.2
실질 성장률	%	2.1	-6.1	1.5	2.6	2.0	2.5	2.0	1.6
실업률	%	1.0	1.7	1.9	1.3	1.0	1.0	1.0	1.0
소비자물가 상승률	%	0.7	-0.8	1.2	6.1	1.2	0.4	0.2	0.7
재정수지(GDP 대비)	%	-1.9	-6.8	-5.5	-2.7	-3.0	-5.6	-5.8	-5.3
총 수출	십억 달러	246.3	227.0	270.6	285.2	280.7	297.0	303.0	306.0
(對韓 수출)	백만 달러	5,318	5,197	7,015	7,877	7,367	7,174	4,166	-
총 수입	십억 달러	236.3	186.6	238.6	271.6	261.4	277.8	286.7	290.4
(對韓 수입)	백만 달러	7,804	6,853	8,524	8,584	7,548	7,678	4,625	-
무역수지	십억 달러	26.7	40.4	31.9	13.5	19.4	19.3	16.3	15.6
경상수지	십억 달러	38.3	20.9	-10.7	-17.2	7.4	11.3	10.1	11.9
환율(연평균)	현지국 / US\$	31.0	31.3	32.0	35.1	34.8	35.3	32.9	32.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84.1	172.7	186.7	76.6	152.1	81.5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7.8	-56.3	146.5	117.1	80.5	105.8	-	-

자료: IMF, EIU,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태국중앙은행, 태국상무부, UNCTAD, K-stat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 성장률) 정치 불확실성 속에 성장률은 '25년 1.5~2.7%, '26년 1.6~1.7% 전망
 - 미국발 관세 충격·관광산업 부진·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지속될 경우 재정·신용등급 부담 등 하방 리스크 확대
- (소비) 가계부채 부담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민간소비 회복 제한, 전체 소비는 완만한 수준 전망
 - 가계부채는 GDP 대비 '24년 90.9% → '25년 약 88.8% → '26년 85~90% 수준 예상으로 단기간 개선이 어려워 소비 제약 지속
- (민간투자) 침체 지속, 공공투자 확대가 부분 보완 전망
 - SCB 전망 : '25년 -2.2%, '26년 -0.2% / 공공투자 '25년 5.8%, '26년 1.5%
- (산업생산) 수출 부진·투자 위축 영향으로 전반적 생산 둔화 가능성
 - 외수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가 제조업 활동 제약
- (대외교역) '25년 1~7월 교역 확대(수출 +14.4%, 수입 +10.6%), 소폭 흑자
 - 주요 교역상대 : 중국·미국·일본 등 / 품목은 전기기기·기계·차량 중심

- (투자유입) 2025년 상반기에도 디지털 등 신산업이 유입을 주도하고, 전기·전자·자동차·화학 등 제조와 함께 12대 미래산업으로 집중 유치되는 흐름
 - 최근 동향 : BOI 승인 기준 디지털 프로젝트 급증, 투자국은 홍콩·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 중심
- (투자진출) 對한국 기준 2025년 1분기에도 소폭 순유출 기조로 규모는 제한적이며, 업종은 ‘기타 서비스’ 등 서비스형 비중
 - 최근 동향 : 2024년에도 對한국 투자 규모는 작고, CP ALL의 GOPIZZA 지분투자 등 리테일·F&B 연계 사례 중심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정부 구성) 아누틴 찬위라꼴 신임 총리 선출, 연립 기반 재편 진행

- 2025년 9월 5일 국회 표결을 통해 품짜이타이 당수 아누틴이 총리로 선출되며, 1년여의 정국 불안 이후 연립 구도가 재정비됨. 초기 연립 결속과 조기 총선 가능성, 내각 구성 방향이 단기 정책 추진 속도를 좌우할 전망
 - 직전 정권의 주요 재정·소비진작정책(예 : 디지털 월렛)은 재배분·보완 기조로 전환되었고, 대외 통상 변수(對美 관세 리스크 등)에 대응한 재정 조정이 진행

□ (정치 일정·통치 환경) 정책 연속성 유지 및 선별 조정

- 재정·투자유치, 전기차(친환경차) 전략 등은 지속하되, 사회·보건·규제 영역(예 : 대마 관리체계)은 방향 조정
 - * 연립 협상 결과와 내각 구성 완료 시점에 따라 세부 로드맵이 확정될 전망
- 부가가치세(VAT) 7%는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추가 연장 결정(법정세율 10%와의 격차 유지)으로 단기 소비·비용 안정 기조를 강화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재정·거시) FY2026 예산 개요

- 태국 2026년 예산은 총지출 3.78조 바트(약 1,020억 달러), 재정적자 8,600억 바트(약 262억 달러, 명목 GDP 대비 4.3%)로 편성되었고, 전년('25) 대비 지출 0.7% 증가, 적자 1% 감소 기조
- 2025년 9월 2일 상원 3독 최종 통과(찬성 151·반대 1·기권 27)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고(왕실 재가 후 시행), 거시 가정은 성장률 2.3~3.3%, 물가 0.5~1.5%를 전제
- 경기 둔화·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목표로 한 '완만한 확장+적자 축소'형 편성

□ (신성장동력) 전기차(EV, 전기자동차) 3.5 정책 지속 - 보조금·관세·개소세 인센티브

- 2024~2027년 'BEV 3.5' 하에서 승용·픽업·이륜에 대해 보조금(2025년형 최대 7.5만 바트(약 2,290달러)), 수입관세 감면('24년, '25년), 개별소비세 2% 적용 등을 제공. 수입물량 대비 현지 생산 의무(1:2 또는 1:3)와 2026년 이후 배터리 국산화 요건을 동반, '생산 허브' 전략과 연계
 -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 부품·배터리·충전/소프트웨어 등 밸류체인 협력 여지가 확대되나, 로컬 콘텐츠·생산 이행 약속(MOU) 관리가 필수

□ (투자유치) BOI(태국투자청) 인센티브 재정비 및 토지·고용 관련 관리 강화

- BOI 승인을 받은 외투기업에 대해 장기법인세(CIT) 면제, 설비·원재료 관세 감면 등 기조 유지. 2025년엔 경쟁력강화기금(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을 통한 설비 디지털화·고도화 지원 자원 확충(추가 100억 바트(약 3억 500만 달러) 등) 결정
 - 2025년 9월 1일 시행으로, BOI 혜택 기업의 '주거용 토지/주택' 보유 특례가 축소·정비되는 등 자산보유 관리가 엄격해짐

□ (노동·임금) 최저임금 인상(2025년 1월) 및 추가 인상 논의

-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직종별로 시간·일급 기준이 상향 조정. 향후 추가 인상 로드맵이 논의 중으로, 노동비용 구조 점검 필요
 - 시사점 : 인건비 상승이 제조·서비스 원가에 반영될 가능성, 자동화·생산성 투자와 병행한 현지 고용 전략 재설계 필요

태국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13차 최저임금 (THB/1일)	지역 수	지역
1	400	4	Chachoengsao(차츄사오 / 동부), Chonburi(쑤부리 / 동부) Phuket(푸켓 / 남부), Rayong(랴옹, 동부)
		1	Amphoe. Ko Samui(코사무이, 수랏타니주 소재 / 남부)
2	380	2	Amphoe. Chiang Mai(치앙마이, 치앙마이주 소재 / 북부) Amphoe. Hat Yai(햇야이, 송클라주 소재 / 남부)
3	372	6	Bangkok(방콕 / 중부), Nakhon Pathom(나콘빠툼 / 중부), Nonthaburi(논타부리 / 중부), Pathum Thani(빠툼타니 / 중부), Samut Prakan(사뭇쁘라칸 / 중부), Samut Sakhon(사뭇사콘 / 중부)
4	359	1	Nakhon Ratchasima(나콘랏차시마 / 동북부)
5	358	1	Samut Songkhram(사뭇송크람 / 중부)
6	357	5	Khon Kaen(콘แก่น / 동북부), Chiang Mai(치앙마이, Amphoe. Chiang Mai 제외 / 북부), Prachin Buri(쁘라찐부리 / 동부), Ayutthaya(아유타야 / 중부), Saraburi(사라부리 / 중부)
7	356	1	Lop Buri(롭부리 / 중부)
8	355	3	Nakhon Nayok(나콘나욕 / 중부), Suphan Buri(수판부리 / 중부), Nong Khai(농카이 / 동북부)
9	354	2	Krabi(끄라비 / 남부), Trat(뜨랏 / 남부)

구분	13차 최저임금 (THB/1일)	지역 수	지역
10	352	15	Kanchanaburi(칸차나부리 / 중부), Chantaburi(짚타부리 / 동부), Chiang Rai(치앙라이 / 북부), Tak(탁 / 북부), Nakhon Phanom(나콘파놈 / 동북부), Buriram(부리람 / 동북부), Prachuap Khiri Khan(쁘라쭈압키리칸 / 남부), Phang Nga(팡응아 / 남부), Phitsanulok(핏싸눌록 / 중부), Mukdahan(묵다한 / 동북부), Sakhon Nakhon(사콘나콘 / 동북부), Songkhla(송클라, Amphoe. Hat Yai 제외 / 남부), Sa Kaeo(사깨오 / 동부), Surat Thani(수랏타니, Amphoe. Ko Samui 제외 / 남부), Ubon Ratchathani(우본랏차타니 / 동북부)
11	351	3	Chum Phon(쑤폰 / 남부), Phetchaburi(펏차부리, 또는 펏부리 / 서부), Surin(수린 / 남부)
12	350	3	Nakhon Sawan(나콘사완 / 중부), Yasothon(야소톤 / 동북부), Lamphun(람퐁 / 북부)
13	349	5	Kalasin(깔라신 / 동북부), Nakhon Sri Thammarat(나콘씨탐마랏 / 남부), Beung Kan(벵칸 / 동북부), Phetchabun(펏차분 / 북부), Roi Et(로이엣 / 동북부)
14	348	5	Chaiyanat(차이야낫 / 중부), Chaiyaphum(차ैया픸 / 동북부), Phatthalung(팟타룽 / 남부), Singburi(쌍부리 / 중부), Ang Thong(앙통 / 중부)
15	347	16	Kamphaeng Phet(감팽펏 / 중부), Phichit(피찻 / 중부), Maha Sarakham(마하사라캄 / 동북부), Mae Hong Son(매홍손 / 북부), Ranong(라농 / 남부), Ratchaburi(라차부리, 또는 랏부리 / 중부), Lampang(람방 / 북부), Loei(로이 / 동북부), Sri Saket(시사켓 / 동북부), Satun(사툰 / 남부), Sukhothai(수코타이 / 북부), Nong Bua Lam Phu(농부아람푸 / 동북부), Amnat Charoen(암낫짜른 / 동북부), Udon Thani(우돈타니 / 동북부), Uttaradit(우따라딛 / 북부), Uthai Thani(우타이타니 / 중부)
16	345	4	Trang(뜨랑 / 남부), Nan(난 / 북부), Phayao(파야오 / 북부), Phrae(프래 / 북부)
17	337	3	Narathiwat(나라티왓 / 남부), Pattani(팟타니 / 남부), Yala(알라 / 남부)

자료: 태국 노동부(발효: 2025.1.1.~)

□ (관광·이민) 비자체제 간소화 및 체류 편의 확대

- 중북 제거 및 처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2025년 8월 31일부로 비(非)이민 비자 17개 유형을 7개로 단순화
 - 제도 간소화가 인력 파견·출장·유학·장기체류 수요 대응에 긍정적
 - LTR(장기거주), SMART(첨단인재) 등 기존 우대트랙은 병행 운영되며, 단기 긴급업무(UWP) 제도 등 현행 도구는 유지

태국 비자 유형

구분	새 비자 코드	비자명	주요 목적	통합된 비자 유형	비고
1	F	Official	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교 임무 수행	F(Official)	정부·공공 업무용
2	B	Business	사업, 취업, 투자, 전문가 활동	B, B-A, IM, IB, EX	일반 비즈니스, BOI 투자, 전문가 포함
3	ED	Education & Research	교육, 연구, 종교 활동	ED, R, RS	학교·연수기관·연구기관·종교 관련
4	M	Mass Media	언론 및 미디어 종사	M	기자, 방송인, 제작자 등
5	O	Others	가족 체류, 은퇴, 장기체류 등 기타	O, O-A, O-X	은퇴자·가족동반 등 포함
6	L-A	Labour	일반 노동 취업	(신규 분류)	저숙련·일용직 중심
7	O L-A	Other Labour-related	기타 노동 관련 체류	(신규 분류)	노동+가족 복합 목적 등

자료: Visaliv, Thailand Visa 2025 : New Non-Immigrant Categories, 2025.09.11.

□ (디지털·데이터) PDPA(개인정보보호법) 역외이전 규칙(2024.3.24. 발효) 및 2025년 집행 강화

- 2024.3.24.부터 역외이전 기준·모형계약(SCC 유사)·기업규범(BCR) 등 세부 고시 효력이 발생. 클라우드·마케팅·역외처리 시 적정성 평가·계약통제 필요
 - 시사점 : 본사-태국 법인 간 데이터 이전, 고객정보 처리, 제3국 위탁 시 법무·보안·계약 템플릿 정비 필수

□ (조세·행정) 부가가치세 7% 유지('25.10.~'26.9.), 전자세금계산서(e-Tax) 확산

- VAT 7% 연장으로 내수·비용 안정성 유지, 외국 전자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유예 종료('25년 9월부터 엄수) 등 디지털 과세 준수도 강화
 - e-세금계산서/영수증 제도는 의무 전면화 전 단계이나 사용확대 추세로, 대형 납세자·거래처 대응을 위해 시스템 사전 도입 권고

□ (보건·사회규제) 대마 관리체계 '의료용 중심'으로 회귀

- 2025년 6월 23일 보건부 고시 '통제 허브(대마꽃) B.E.2568' 관보 게재(6/24 발효). 대마 '꽃'만 '통제 허브'로 지정, 의료인 처방 기반 의료용 판매 원칙을 재확인·강화(처방 최대 30일). 향후 법률(대마법) 제·개정에 따라 세부기준 재정비 가능
 - 식음료·웰니스·유통업은 품목·표시·판매자 요건을 재점검해야 하며, 외국인 사업자는 외국인사업법(FBA) 및 보건 규제의 이중 준수가 필요

□ (ESG/환경) 대기질·포장재 순환경제 법제화 가속

- (대기질) ‘클린에어법’(Clean Air Bill, 초안) 국회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사업장·차량·노천소각·월경성 오염관리 강화, 경제적 유인·벌칙 도입이 전망됨. 프로젝트·공장 인허가와 운영 규정이 강화될 수 있음
- (포장재) 2024년 공개된 ‘지속가능 포장관리법(안)’을 통해 2027년 생산자 책임재활용(EPR) 시행을 준비 중. 2025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되어 원료·포장재 수급전략 관리 필요

□ (자본시장·공시) 기후공시 의무화 로드맵(ISSB 기준) 추진

- 태국 증권당국(SEC)은 ‘기후우선’ 방식으로 기후 관련 공시, 국제지속가능성기준(IFRS S2) 중심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 상장사·금융기관부터 적용 예정으로, 공급망 평가시 우리 기업의 ESG 데이터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

3. 주요 이슈 Pick

가. 정치 전환 국면

□ 정치 전환 국면 : 태국은 아누틴 총리 취임으로 권력 공백이 해소되며 정치 전환기에 진입하였고, 신임 총리는 4개월 내 의회 해산 방침을 밝힘

- '25년 8월 29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프아타이당(Pheu Thai) 소속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총리를 윤리 위반 판결로 해임
 -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내각 구성 과정이 불투명해지며 신임 총리로의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함
-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 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품탐 위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권한대행 총리로서 하원 해산을 위한 왕실 칙령 초안을 제출했으나, 추밀원이 절차적·법적 문제를 이유로 반려

프아타이 집권당의 단기·중장기 정책 주요 내용

주요 정책	세부 내용
1. 부채 시스템 구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주택 및 자동차 대출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태국 국민의 금융 지식을 높이고 저축을 촉진
2. 중소기업 기업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한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정부와 민간 공동기금 설립 및 채무 유예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부채 문제 해결
3. 공공유틸리티 가격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가격의 재구조화 및 직접 전력 구매 계약(Direct PPA)에 대한 요구사항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 국가의 전략적 안보를 위한 전략적 석유 비축(SPR)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가 에너지 자원을 탐색하며, 캄보디아와 중북 청구권 지역(OC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임•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추진 및 "단일 요금" 정책 지원, 운송비용 부담을 경감
4. 지하 경제의 양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식 경제를 수입 시스템에 도입하여 국가에 새로운 수입을 창출(GDP 50% 이상의 가치)
5.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
6. 농민 소득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기술(Agri-Tech) 발전을 통한 농업의 현대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 안보 확립•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가격 인상을 통한 농민 소득수준 향상
7. 관광 진흥 관광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CE 관광 및 외국인 관광객(디지털 유목민) 적극 유치를 통한 관광 수입 창출• 엔터테인먼트단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주요 정책	세부 내용	
8. 마약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 및 거래 원천 제거, 불법 수입 단속, 마약 거래자 자산 압수• 지역 사회 내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 직업 훈련, 교육 등의 사회적 재활 기회를 제공	
9. 범죄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역량과 효율성 강화• 주변국과의 협력 및 상업 은행 간의 공동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 제공	
10. 사회 복지 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노인, 소수민족 및 무국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육성	
중장기 정책	1. 기존 산업 확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1.1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 차량(HEV, PHEV, BEV 및 FCEV)으로의 전환 촉진1.2 태국의 창조적인 문화(Creative Culture)의 발전을 통한 ‘소프트파워’ 증진 (현지 요리, 태국 직물, 무에타이, 태국 공연 예술, 주류 등)
	2.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2.1 녹색경제(Green Economy), 친환경 경제 촉진2.2 전자(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산업의 강점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지속적인 발전2.3 의료서비스 및 웰빙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헬스케어 기술 및 생명공학의 혁신을 통한 태국의 메디컬 허브화2.4 금융 관련 생태계를 발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태국을 금융 중심지로서 자리매김
	3. 산업 혁신 인프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3.1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3.2 철도, 수로, 도로 및 항공 운송을 위한 대규모 교통 인프라(메가 프로젝트) 개발, 물류비용을 줄이고 콜드체인 시스템 개발3.3 에너지, 자원관리 관점에서의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개발 촉진(가정용 태양광 발전, 수자원 관리 효율성 증진)3.4 양질의 디지털 기술 인프라 개발3.5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둔 세금 구조 개혁3.6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 증대

- 2025년 9월 5일 국회서 아누틴 찬위라쿤(Anutin Charnvirakul)이 311표로 선출, 9월 7일 국왕 재가로 공식 취임
 - 패통탄 해임 이후 권력 공백 해소를 위한 표결에서 과반을 확보
- 9월 7일 국왕 재가(royal endorsement)로 아누틴 총리 공식 취임
 - 재가 직후 총리 자격으로 대국민 메시지 발표
- 조기 총선 관련 : 아누틴 총리는 4개월 내 하원 해산을 공언(조기 총선 시사)
 - 야권과의 협력 조건에 포함된 핵심 약속으로 보도

- 내각 구성 진행 : 재무(Economy/Finance)-에끄니띠 니띠탄쁘라뻏(Ekniti Nitithanprapas), 에너지(Energy)-아웃타폰 렉피분(Auttapol Rerkpiboon), 외교(Foreign Affairs)-시하썩 푸앙쨛깨오(Sihasak Phuanketkeow) 내정/지명 보도(확정 전 변동 가능)
 - 경제팀 신뢰 회복을 표방한 실무형 인선 기조
- 정권 구도 : 소수 내각 가능성-진보 야당은 내각 불참, 대신 조기 해산·헌법 개정(국민투표) 의제에 협조하는 구도
 - 연정 안정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정책 방향 : 성장 부양 및 국경 현안 안정(외교 리스크 진정) 기조 천명
 - 단기 과제 : 경기심리 회복·가계부채 관리·재정 운용 신뢰 회복

나. 글로벌 리스크와 저성장 지속

□ 무역 불확실성과 투자 위축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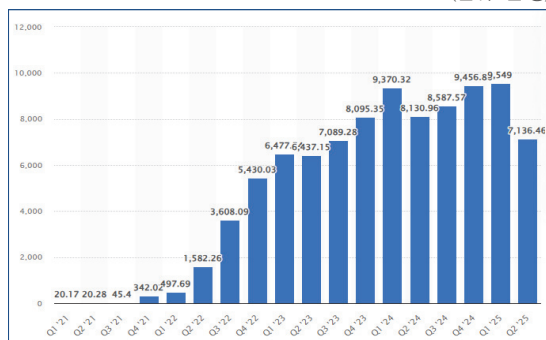
- 태국은 수출이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있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함
 - '25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對태국 고율 관세*는 전자·자동차 부품·가전 등 태국 주력 수출 품목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 미국의 통상조치(품목별 상이)가 진행/변동 중. 일부 예정 관세는 단계적/경감(상한 19%) 보도도 있어 품목·율·시점을 수시 업데이트 전제
 - 미·중 경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태국의 무역 구조에 불확실성을 높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실제 '26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이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태국은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 있음
 - 태국 내부적으로는 정치 불안정이 경제정책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이러한 복합적 리스크는 태국의 FDI 유입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음
 - FY2026 예산(3조 7,800억 바트, 약 1,153억 달러)은 2025년 9월 2일 상원 최종 통과 완료

□ 관광산업 회복의 불확실성

- 태국 주요산업인 관광 부문의 회복 및 관련 수입 확대
 - '25년 1~8월 외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2,190만 명), 신용평가사 트리스(Tris Rating)는 '25년 태국의 연간 관광객 수가 3,3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유럽발 장거리 관광 수요 회복 지연은 2025~2026년 전망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
 - 관광 회복은 단기 성장률 반등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관광객 수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으나 통계상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관광산업의 불완전한 회복은 내수 소비 위축 → 고용 불안정 → 성장률 제약으로 이어져, 태국의 저성장 기조 지속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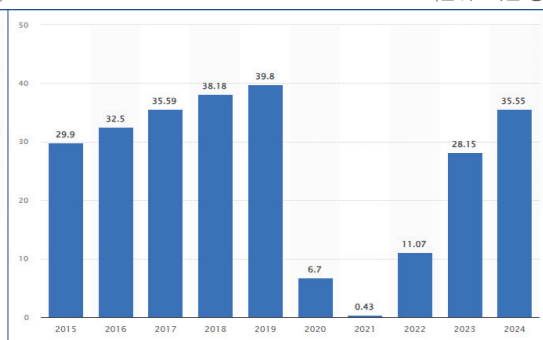
〈분기별 관광객('21~'25년 2분기)〉

(단위: 천 명)



〈연도별 관광객('15~'24년)〉

(단위: 백만 명)



자료: statista

다. 인프라 개발과 신성장 산업 육성

□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 EEC 연계 고속철도 및 랜드브리지(Land Bridge)

-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중심으로, 고속철도망 확장 계획이 가시화, Don Mueang-Suvarnabhumi-U-Tapao 고속철도는 방콕 세 공항을 연결하는 220km 고속철도로, 2029년 개통 예정이며, 최대 시속 250km 속도로 운행할 계획
- 랜드브리지(Land Bridge) 프로젝트는 안다만해와 태국만을 잇는 두 개의 심해항 및 89km 교통망을 구축하여, 운송 시간을 크게 단축(약 4일)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공개 입찰은 2026년에 예정

태국 내 진행중인 대형 프로젝트 투자 계획(~2028)

구분	세부 내용	투자 가치(억 바트)	기간
일반도로	도로 연결(Srinagarindra에서 Suvarnabhumi까지)	290	2024~2027
일반도로	도로 연결(Nakhon Pathom에서 Cha Am까지)	510	N/A
고속도로	고속도로 북부선 개발	370	2024~2027
고속도로	고속도로 개발(chalongrat에서 chatuchok까지)	220	2024~2027
고속도로	고속도로 개발(Ka thu에서 Patong(Phuket)까지)	140	2024~2027
고속도로	고속도로 개발(Koh Kaew에서 Ka thu(Phuket)까지)	300	2025~2028
철도	복선 철도 건설(Den Chai-Chiang Rai-Chiang Khong)	850	2022~2026
철도	복선 철도 건설(Ban Phai-Nakhon Phanom)	680	2022~2026
철도	공항 연결 고속철도 건설(Don Mueang-Suvarnabhumi-U tapao)	2,200	2022~2028
항공	Don Mueang 공항 개발(3단계)	360	2022~2029
항공	Chiang Mai 공항 개발(1단계)	150	2022~2026
항공	Chumphon 공항 개발(2단계)	34	2022~2027
항공	Rayong 공항 개발(3단계)	35	2022~2028

□ 데이터센터 투자 및 첨단 산업 역량 강화

- TikTok(바이트댄스)은 1,268억 바트(약 38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를 2026년 가동 예정이며, Google, AWS, Microsoft도 태국 내 데이터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임
- 태국 정부는 향후 5년간 28만 명 고기술 인력(반도체 8만 명, EV 15만 명, AI 5만 명)을 육성해 산업 전환과 신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 태국 정부 12대 집중육성산업 FDI는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5,477억 바트(약 165억 5,000만 달러)로 총 FDI 승인금액의 87.0% 차지

대태국 디지털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BOI 승인기준)

(단위: 건, 백만 바트)

구분	건수			금액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
디지털	53	36	-32%	26,387	322,233	1121%

자료: 태국 투자청(BOI)

라. 태국의 전기차 중심 산업 구조 전환

□ 태국 정부 무공해차량 전환 이니셔티브

- 태국 정부는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NEVPC)를 설립하여 전기차 생산 및 구매 촉진·전기차 충전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 중
- 태국 '25년 6월 누계 기준 배터리 전기차 등록대 수 296,813대 기록
- 태국 정부 '35년 전기차 사용 비중 100% 확대 목표 로드맵 발표
 - 태국 정부 무공해차량 전환 목표 : '25년 20~30% → '30년 40~50% → '35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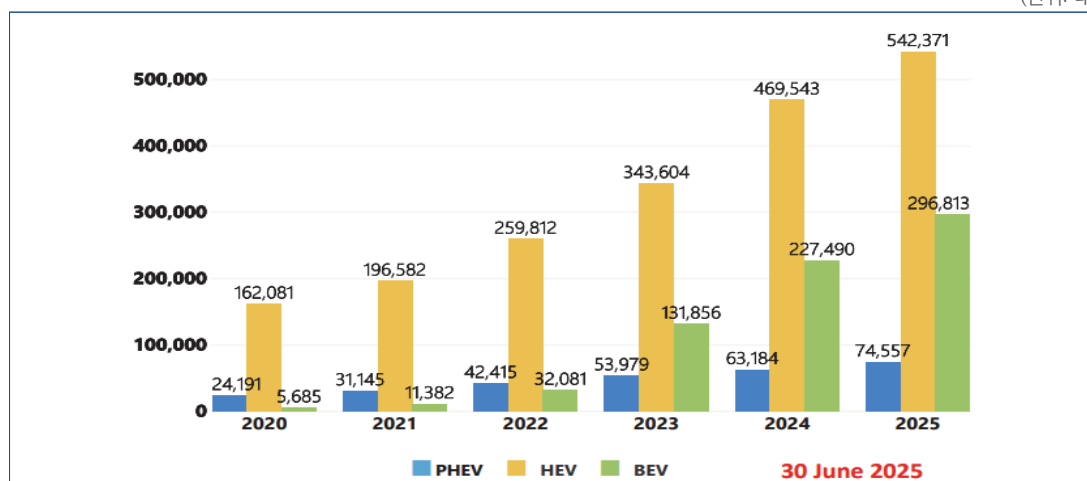
태국 정부 무공해차량 전환 목표

유형		무공해차량 목표 등록 대수(전체 중 무공해차량 비중)		
		2025년	2030년	2035년
생산량	승용차, 픽업트럭	225,000(10%)	725,000(30%)	1,350,000(50%)
	오토바이	360,000(20%)	675,000(30%)	1,850,000(50%)
	버스/트럭	18,000(33%)	34,000(47%)	84,000(87%)
사용량	승용차, 픽업트럭	225,000(30%)	440,000(50%)	1,154,000(100%)
	오토바이	360,000(20%)	650,000(40%)	1,800,000(100%)
	버스/트럭	18,000(23%)	33,000(40%)	83,000(100%)

자료: 태국전기자동차협회(EVAT), 국토교통부(DLT)

〈태국 무공해차량 등록 현황〉

(단위: 대)



자료: 태국 도로교통국

□ 태국 정부의 아세안 전기차 생산 허브화 정책

- 태국 정부는 EV3.0의 연장선인 EV3.5(2024~2027년) 정책을 발표, 소비자 구매 보조금, 기업의 태국 내 생산 여부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
- 완성차 수입 시 '24~'25년 기간 동안 관세 소비세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립차 생산 시 '24~'27년 동안 소비세 감면 및 보조금 혜택
- 기존 EV3.0정책 대비 보조금 혜택은 축소, 태국 내 전기차 생산의무는 강화
- 배터리 전기차 생산 관련 프로젝트 수는 21건, 총 투자 규모는 411억 바트(약 12억 5,000만 달러), 연간 생산 능력은 386,000대('25년 상반기 기준)
- 중국업체가 제조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하여 태국 시장을 적극 공략 중, '24년 기준 배터리 전기차(BEV) 시장 내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약 86%를 기록

태국 내 주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진출 현황

브랜드	국가	투자 금액(백만 바트)	연간 생산능력(대)	생산 시작 연도
MG	중국	10,000	100,000	2024년 1분기
GWM	중국	22,600	100,000	2024년 1분기
BYD	중국	17,891	150,000	2024년 6월
GAC AION	중국	6,400	100,000	2024년 7월
VOLT	중국	400	4,000	2024년
CHANGAN	중국	8,862	100,000	2025년 1분기
CHERY	중국	6,500	50,000	2025년
합계		709,195	75,141	

자료: Krungsri Research

- 2024년 기준 태국 전기차 시장은 BYD(40.3%), MG(13.5%), NETA(11.9%) 등 중국계 브랜드가 전체의 약 85%를 점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반면 테슬라(6.1%)와 볼보(3.8%) 등 비중국 브랜드의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무름

배터리 전기차 판매 현황(2025년 1~8월)

국가(점유율)	브랜드	판매 현황
중국(87.7)	BYD	24,619
	NETA	2,847
	GWM	4,572
	MG	11,225
	CHANGAN	2,216
	GAC	8,097
미국(5.5)	TESLA	3,379
유럽(5.4)	VOLVO	1,424
	BMW	642
	MINI	737
	PORSCHE	255
	MERCEDES	210
	AUDI	39
한국(1.1)	HYUNDAI / KIA	649
일본(0.3)	NISSAN	2
	TOYOTA/LEXUS	19
	HONDA	154
합계		61,086

자료: autolifethailand.tv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1
2. 유망 산업	37
3. 협력 기회	39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아세안 3위의 경제대국이자 바트(Baht)화 경제권 주도
- 아세안 대표 제조업 거점이자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진 개방형 경제국가
-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태국, 가처분소득은 서서히 증가
- 동남아 한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현지화된 한류 소비 확산이 두드러지는 국가

가. 시장 특징

□ 아세안 3위의 경제대국이자 바트(Baht)화 경제권 주도

-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
 - * '25년 GDP 전망치(달러, IMF) : 인도네시아 1조4,300억, 싱가포르 5,648억, 태국 5,462억, 필리핀 4,975억, 베트남 4,910억, 말레이시아 4,450억
- 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의 통화 중심 국가로서, 특히 바트화 경제권을 주도
 -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들 간 무역 결제에서 바트화를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
 - *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제 결제 및 정산 통화로 태국 바트화(THB)를 공식 승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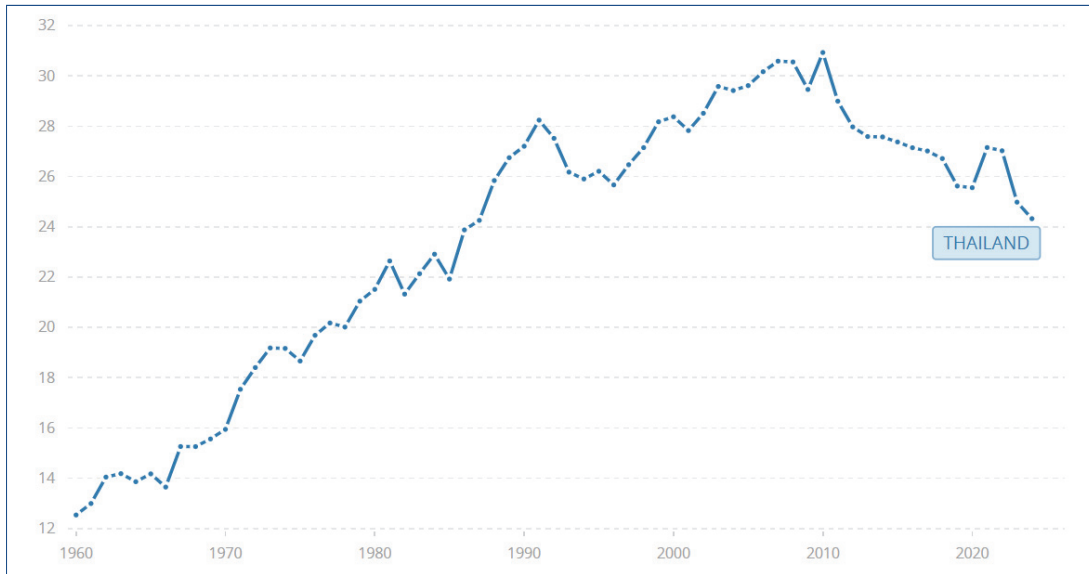
□ 아세안 대표 제조업 거점이자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진 개방형 경제국가

- 태국은 아세안 내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최대 생산 및 수출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에 깊이 통합됨
 - * 제조업 비중(제조업 부가가치/GDP, WB) : ('20년) 26% → ('21년) 27% → ('22년) 27% → ('23년) 25% → ('24년) 24%로 최근 완만한 하락세
 - * '24년 기준 태국은 자동차 147만 대를 생산하며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에 위치
- 태국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무역 개방을 확대하며, 2019년까지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가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
 - 이후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시적 변동이 있었으나, 2023년 기준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120% 내외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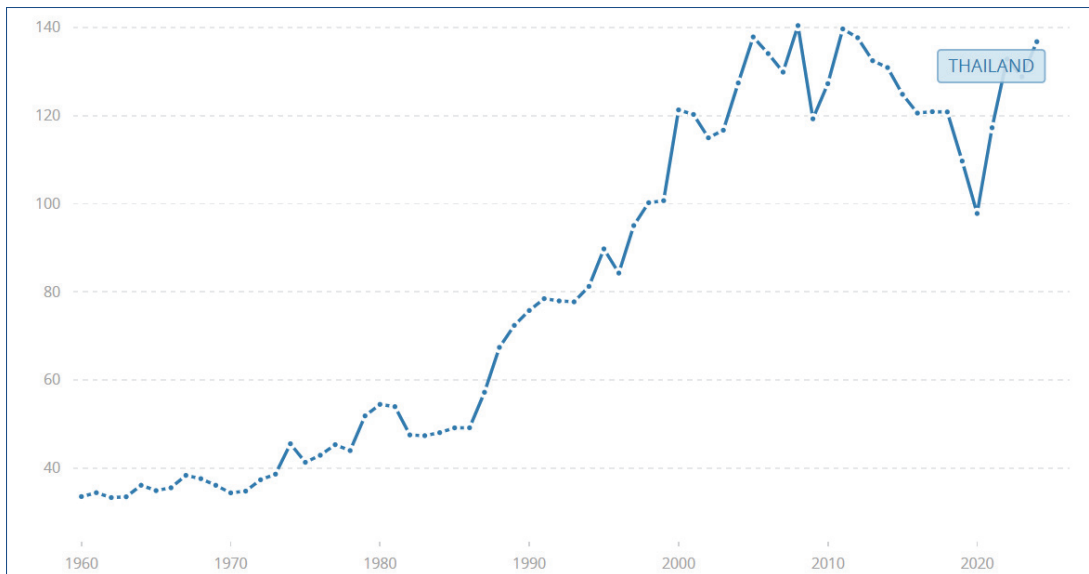
- 태국 무역의 특징은 부품·소재를 수입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로, 특히 자동차·전자·기계 부문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가 높음

* 태국 무역의존도(교역액/GDP, WB) : ('20년) 98% → ('21년) 117% → ('22년) 133% → ('23년) 129% → ('24년) 137%

〈태국의 제조업 비중 추이〉



〈태국 무역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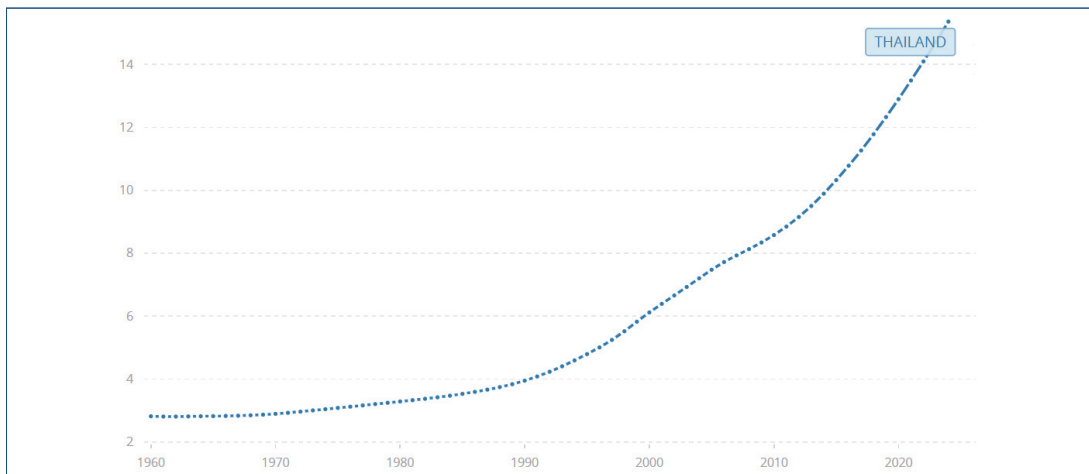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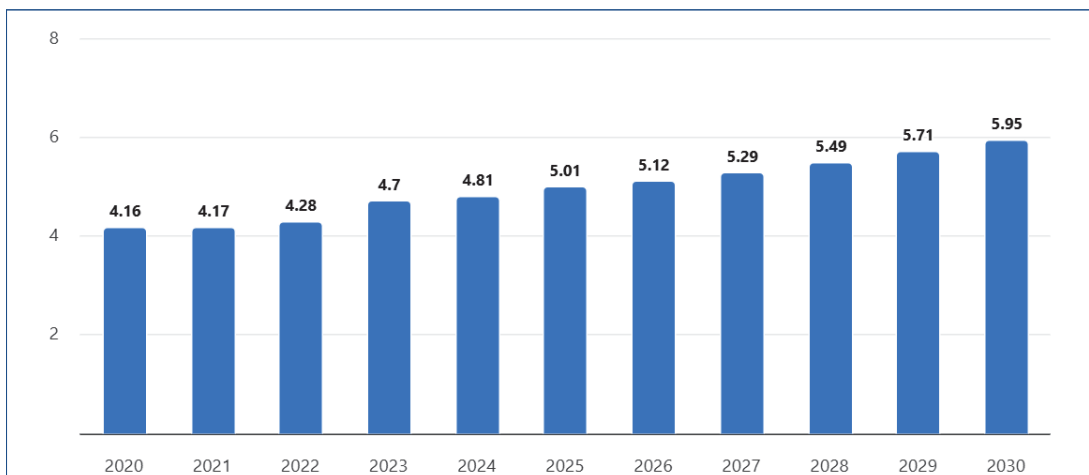
□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태국, 가처분소득은 서서히 증가

- 태국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전체의 15.4%(’24년), 10년 내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WHO)
 - 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 13%, 2024년 15%를 돌파
- ’24년 태국 1인당 가처분소득은 4,810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30년까지 5,95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20년 4,160달러에서 ’24년 4,810달러로 상승했으며, ’30년에는 약 5,9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태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태국 1인당 가처분소득(천 달러)〉



자료: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World Bank) / 태국 1인당 가처분소득(Statista)

□ 동남아 한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현지화된 한류 소비 확산이 두드러지는 국가

- 넷플릭스, 드라마, K-Pop 등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국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태국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한류를 지역화하고 있음
 - 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의 문화·경제적 중심지로서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주변국에 강력한 트렌드 영향력을 행사하는 'Trigger 국가'
 - * K-Pop 팬덤의 활발한 활동과 태국 출신 K-팝 아이돌(민니, BamBam, Lisa 등)의 국제적 성장도 이를 뒷받침
 - '24년 넷플릭스 TV 드라마 부문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을 장악, 현지 소비자들의 콘텐츠 선호도를 반영함
 - Mahidol 대학 조사에 따르면 태국 내에서 한국은 문화 및 패션, 드라마 및 영화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
 - * 태국 내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주'가 주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과일 맛을 가미한 소주 제품이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나. 무역

□ 태국 수출입 동향

- '25년 7월 누계 기준, 글로벌 수요 회복, 무역 긴장(미국 관세)에 따른 전략적 적기 수출, 중국 중심의 공급망 수입 확대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
 - (교역규모) 전년 대비 12.5% 증가한 3,906억 달러(수출 14.4% ↑, 수입 10.6 ↑)
 - (무역수지) 전년 대비 104.6% 증가한 2억 6,000만 달러 무역흑자 기록

태국 5개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 (1~9월)	증감률
수출	272,006	287,425	285,074	300,740	254,146	13.9
수입	267,343	301,030	288,509	305,523	254,576	11.9
교역액	539,349	588,455	573,584	606,263	508,722	12.9
무역수지	4,663	-13,605	-3,435	-4,783	-429	90.3

자료: 태국 상무부

□ 국가별 현황

- 주요 교역 대상국은 ①중국 ②미국 ③일본 ④대만 ⑤말레이시아 순
- 2025년 7월 누계 기준 한-태 교역액은 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으며, 한국은 태국의 13위 교역국

태국 주요 수출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1~9월)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1~9월)	
1	미국	48,353	54,944	52,177	중국	70,827	80,614	77,972	
2	중국	34,173	35,277	30,668	일본	31,195	28,725	22,293	
3	일본	24,594	23,286	17,690	대만	16,603	20,687	18,106	
4	인도	10,116	11,761	11,907	미국	19,307	19,328	15,734	
5	말레이시아	11,965	12,323	9,983	UAE	15,747	16,619	12,957	
6	베트남	11,217	11,783	9,487	말레이시아	13,118	13,577	11,221	
7	홍콩	11,097	10,852	8,880	베트남	7,738	9,116	7,903	
8	호주	12,215	12,350	8,640	인도네시아	8,278	8,704	7,874	
9	싱가포르	10,240	10,365	8,494	한국	8,671	9,344	7,251	
10	인도네시아	10,092	9,491	6,987	싱가포르	8,128	7,386	5,524	
15	한국	6,073	5,957	4,435	11	스위스	4,975	6,950	4,621

자료: 태국 상무부

□ 품목별 수출입

- '25년 1~6월 누계 기준 주요 교역 품목 전기기기·TV·VTR(20.0%), 보일러 기계류(15.2%), 귀금속(8.5%),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8.5%), 일반 차량(6.7%)
 - 전기기기 · TV · VTR은 전자 집적회로의 높은 수입 비중, 교역 1순위 품목
 - 자동차, 전기 · 전자 산업용 부품소재 수입 후 완성품 수출하는 가공무역 발달
- 전 세계적인 금 가격 급등과 투자 수요 확대에 의한 귀금속 수입액 증가
 - 적자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전기기기(△ 103억 달러)이며, 흑자 품목은 일반 차량(105억 달러), 보일러 기계류(98억 달러), 고무와 그 제품(89억 달러) 순

태국의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HS코드)	2024	2025.1~8월	품목(HS코드)	2024	2025.1~8월
1	보일러 기계류(84)	47,608 (16.0)	40,070 (18.0)	전기기기 TV, VTR(85)	65,619 (21.2)	54,495 (24.0)
2	전기기기 TV, VTR(85)	51,105 (17.1)	39,097 (17.6)	광물성 연료(27)	51,682 (16.7)	31,121 (13.7)
3	일반 차량(87)	33,582 (11.2)	22,401 (10.1)	보일러 기계류(84)	36,397 (11.7)	27,079 (11.9)
4	귀금속(71)	18,298 (6.1)	17,695 (8.0)	귀금속(71)	21,659 (7.0)	18,656 (8.2)
5	고무와 그 제품(40)	19,162 (6.4)	13,837 (6.2)	철강(72)	11,172 (3.6)	8,088 (3.6)
6	플라스틱(39)	13,273 (4.4)	9,161 (4.1)	일반 차량(87)	10,853 (3.5)	7,801 (3.4)
7	과실·견과류(08)	6,567 (2.2)	5,618 (2.5)	플라스틱(39)	10,656 (3.4)	7,686 (3.4)
8	광물성 연료(27)	10,241 (3.4)	5,564 (2.5)	철강 제품(73)	8,561 (2.8)	6,038 (2.7)
9	육·어류 조제품(16)	7,004 (2.3)	4,655 (2.1)	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기기(90)	6,915 (2.2)	5,399 (2.4)
10	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기기(90)	5,407 (1.8)	3,936 (1.8)	구리 제품(74)	5,787 (1.9)	4,479 (2.0)
10대 수출 품목 합계		212,247 (70.9)	162,034 (72.95)	10대 수입 품목 합계	229,301 (74.0)	170,842 (72.2)
전체 수출 합계		299,249 (100.0)	222,111 (100.0)	전체 수입 합계	310,070 (100.0)	227,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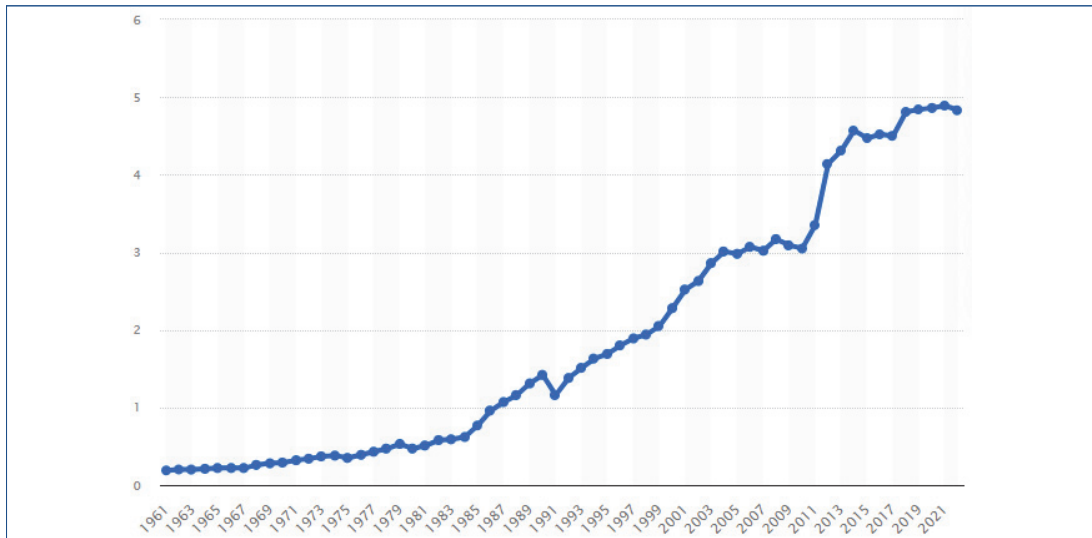
주: 괄호 안 수출/수입 비중
 자료: GTA(HS코드 2단위 기준)

□ 주요 원자재 보유량 및 교역 규모

- 태국은 세계 최대 천연고무 생산국으로 '24년 기준 약 479만 톤의 천연고무를 생산했으며, 전 세계 천연고무 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 '24년 태국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약 386만 톤의 천연고무를 수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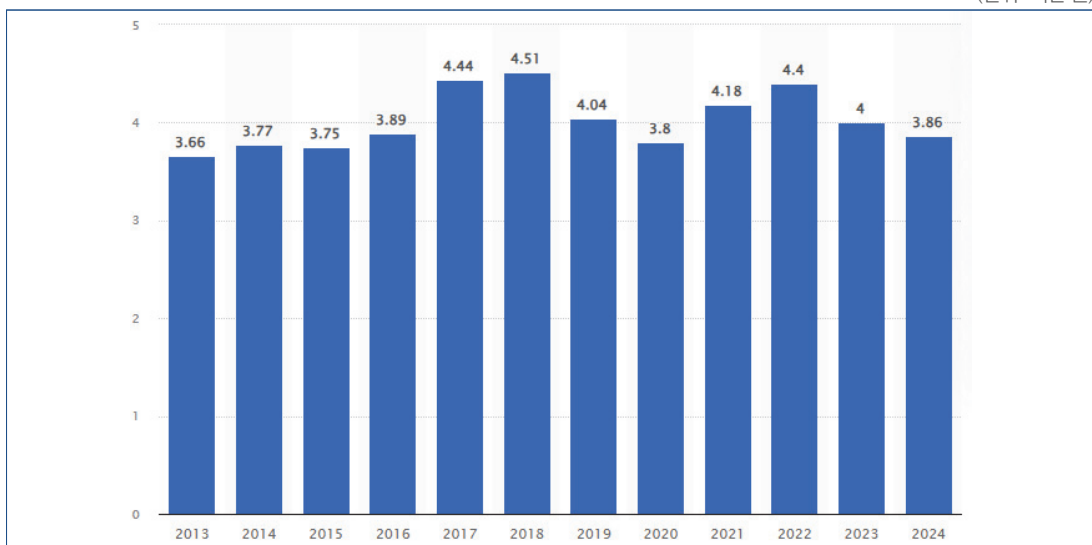
〈태국 천연고무 생산량〉

(단위: 백만 톤)



〈태국 천연고무 수출 동향〉

(단위: 백만 톤)



자료: 스타티스타(FAO, 태국 상무부)

□ 무역장벽

- (수입규제) 2025년 현재 태국,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다수 유지·갱신 중(철강·고무 등 대상 많음)
상무부 DFT ‘무역구제 포털’의 ‘현행 조치’에 중국산 공업용 타이어 등 다수 품목이 “조치 적용 중(正在適用)”으로 게시됨
- (원산지·우회 단속) 원산지 증빙 및 사후심사(PCD) 중심의 서류검증 강화 추세(허위 원산지·우회 적발 시 제재 가능). 태국 관세청은 통관·사후관리 절차를 업무매뉴얼로 표준화하고, 관세법 체계로 단속·제재 근거를 명확화해 집행력을 높임
- (전파·통신기기 인증) NBTC 형식승인/적합성 평가 및 장비등록 필수, 미승인 장비 수입·유통 불가
- (의료기기·보건 제품) 태국 FDA, 위험도 등급·공통기술문서(CSDT) 기준에 따라 인허가·등록 요구.
2024~2025년 제출서류(Full CSDT) 적용 고지에 따라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검역·위생) 축산물·동물성 원재료 함유 식품은 축산개발국(DLD) 수입위생조건·증명서 요구 충족 필요, 요건 미충족 시 반송·폐기 가능
- (공공조달·국산우대) 정부조달에서 ‘국가가 진흥하려는 물품’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MiT(Made in Thailand) 인증제품 활용 장려 기조 지속, 외국산 단독 공급보다 현지 생산·현지 파트너 결합이 유리해짐

다. 산업

□ 자동차 산업

- 태국은 ‘아세안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는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
 - 태국 2024년 기준 전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상용차 생산 5위 국가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태국 GDP의 약 10~11%를 차지

태국 자동차 산업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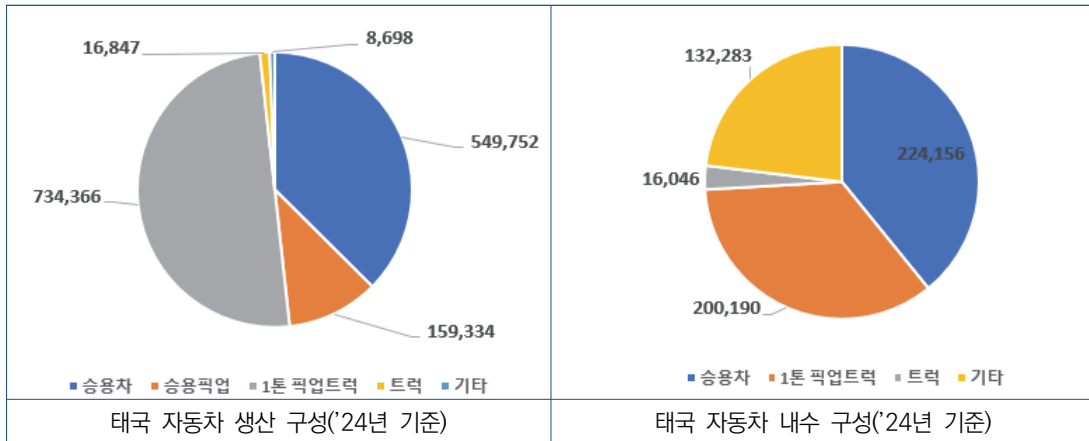
(단위: 대,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월
생산	1,685,705 (18.1)	1,883,515 (11.7)	1,834,986 (-2.6)	1,468,997 (-19.9)	1,075,801 (-4.6)
내수	759,119 (-4.2)	849,388 (11.9)	775,780 (-8.7)	572,675 (-26.2)	447,969 (2.1)
수출	959,194 (30.4)	1,000,256 (4.3)	1,117,539 (11.7)	1,019,213 (-8.8)	657,733 (-9.3)

주: 괄호 안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태국 산업연맹(FTI)

- 196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 전략적으로 육성, 픽업트럭이 생산에 강점을 지님
 - 1톤 픽업트럭 태국 자동차 생산의 약 50.0%, 자동차 내수 소비의 약 39.0% 차지



자료: 태국산업연맹(FTI)

□ 전기·전자 산업

- 태국 전기·전자 산업은 부품·소재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발전해 옴
 - 2024년 기준 전기·전자 산업은 태국 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197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 정책과 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 * 금속·플라스틱·고무 등 자국 내 원재료 산업 기반을 토대로 아시아 내 전기·전자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 (약 3,000여 개 기업이 활동 중이며, 관련 종사자는 약 75만 명에 달함)

태국 전기·전자 산업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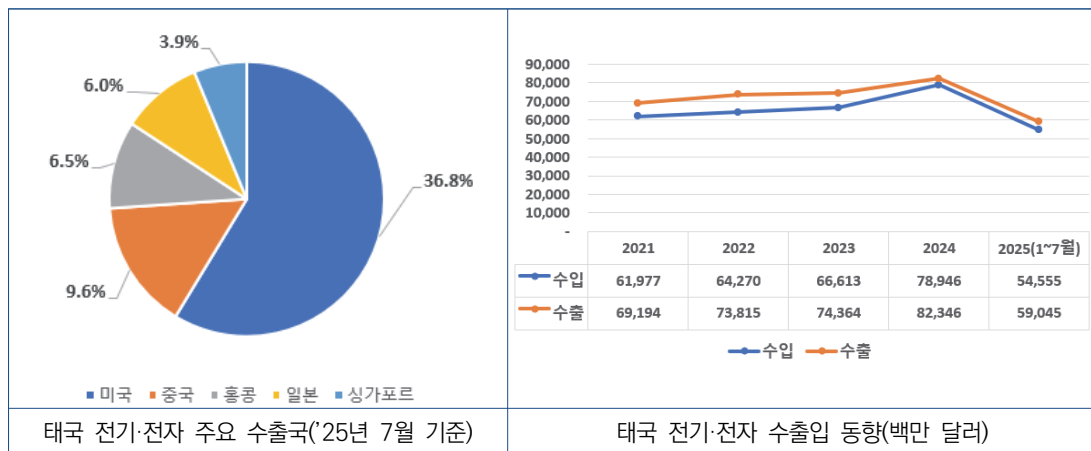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증감률
생산	86,309 (100)	92,192 (100)	97,940 (100)	108,341 (100)	86,195 (100.0)	21.8
수출	69,194 (80.1)	73,815 (80.1)	74,634 (76.0)	82,346 (76.0)	67,437 (78.2)	26.5
내수	17,136 (19.9)	18,392 (19.9)	23,594 (24.0)	24,967 (24.0)	18,759 (21.8)	13.4

주: 괄호 안 비중

자료: 태국전기전자연구소(EEI)

- 태국의 전기·전자 생산품의 수출 비중은 매년 76% 이상을 기록함
 -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컴퓨터 부품, 집적회로(IC), 에어컨 순이며,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지속 확대
 - '24년 태국 전기·전자 제품 수출액 823억 달러, 생산 대비 수출 비중 76.0%
 - 주요 수출국은 미국(36.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중국(9.6%), 홍콩,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나, 미국 및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뚜렷
- *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출액은 2021년 691억 달러 → 2024년 823억 달러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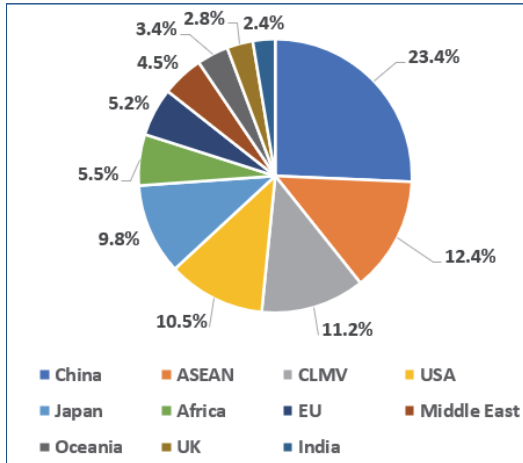
자료: 태국전기전자연구소(ETI)

□ 농업 및 식품 산업

- 태국은 '아시아의 식품 바구니(Food Basket of Asia)' 및 '세계의 부엌(The Kitchen of the World)'으로 불릴 만큼 농업 및 식품산업 강국으로 평가받음
 - 농업은 '24년 기준 태국 GDP의 약 8.7% 내외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태국은 세계 쌀 수출 2위, 카사바 1위, 설탕 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농산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24년 태국 식품 수출액은 1조 6,270억 바트(약 496억 5,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증가하며 세계 12위 식품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
 - '24년 주요 수출국은 중국(23.4%), ASEAN(12.4%), CLMV(11.2%), 미국(10.5%), 일본(9.8%)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중심의 수출 구조가 뚜렷
- * '21년 이후 태국 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24년에 정점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수요 확대와 식량 안보 강화 흐름이 이를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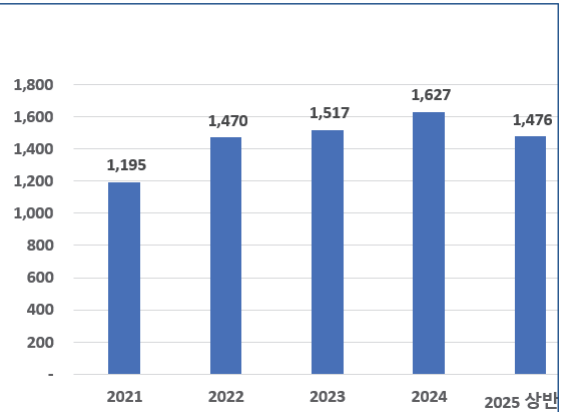
〈2024년 태국 식품 주요 수출국가〉

(단위: %)



〈태국 식품 수출 동향〉

(단위: 십억 바트)



자료: 태국 식품정보센터(Food Intelligence center)

- K-Food의 성과 및 동남아 진출 강화
 - '25년 1분기 K-Food의 전세계 총 수출은 3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
 - * 한국 식품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지표
- 한류 콘텐츠 연계 수출 강화
 - '24년 10월, ICONSIAM(방콕)에서 최초로 개최된 'Seoul Food in Bangkok 2024'는 한국 최대 식품 전시회 'Seoul Food'의 첫 해외 확장 이벤트로, 한국 식품기업 92개사가 참여

행사 개요 및 성과

구분	내용
행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 B2B 전시회(7층 True Icon Hall) + B2C 팝업스토어(1층 SOOKSIAM) • 범위 : 아세안·남아시아 주요 유통사 대상 B2B, 일반 소비자 대상 B2C 병행 • 협력 : KOTRA-태국상공회의소(TCC) MOU 체결
핵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참여 : 주요 유통사 300개사 • 수출 상담 : 약 1,600회 • 방문객(B2C) : 약 200,000명 • 현장 매출(B2C) : 약 40만 달러(약 1,327만 바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식품기업 교류 기반 강화 : KOTRA-TCC MOU로 제도적 협력 채널 확보 • 시장 검증 + 바이어 풀 확대 : B2B·B2C 연계로 제품 경쟁력 검증 및 판로 다변화 촉진 • 아세안·남아시아 허브화 : 방콕 중심의 네트워킹으로 역내 유통망 접근성 제고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글로벌 둔화 속 아세안 상승, 태국은 '회복 국면'
 - 2024년 전세계 FDI는 전년 대비 -11%인 1조 5,000억 달러였고, 아세안은 약 2,250억 달러(+10%)로 견조했음. 태국은 회복 국면에 있으나, 역내 선도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대비 다음 군으로 평가됨
 - 2025년 1분기 태국 FDI 순유입(Net flow, BPM6*)은 34억 800만 달러(1,152억 8,000만 바트)로 전년 동기 대비 달러 기준 +35.9%, 바트 기준 +28.9%. 2024년 연간 순유입은 분기 합계 100억 9,900만 달러로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이어감('24년 분기별: 25억 800만 → 9억 3,600만 → 20억 5,000만 → 46억 600만 달러)

* IMF의 국제수지·대외투자통계 작성 표준 지침(6판)

□ 현지 주요 투자유치 산업

- 산업별로 제조·금융이 견인, 도소매 급증, 부동산 완만 조정
 - ('25년 1분기 산업별 순유입) 총계 1,152억 바트(약 35억 2,000만 달러)
 - * 산업별 유입액(억 바트): 제조업 457 금융·보험 410, 부동산 202, 도·소매 132
 - (전년 동기 대비 해석) 제조는 전자·자동차(EV 밸류체인) 중심의 핵심 흡수처 역할을 유지했으며, 도·소매는 편의점·모던 트레이드·이커머스 확장에 힘입어 증가
 - * 전년 동기 대비 금융·보험 +5,624%, 도·소매 +671%, 제조 -14.0%, 부동산 -6.0%
 - * 분기 순유입(Net flow)은 재투자이익·배당·내부대출 상계 값으로 ±가 가능하며, 일부 업종에서 순유출(-)이 발생하면 상위업종 합계가 총계보다 크게 보일 수 있음.(BPM6, BoT 기준)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홍콩 1위, 중국 2위, 일본·싱가포르 흑자전환, 미국 감소, 한국 순회수
 - '25년 1분기 순유입은 홍콩 → 중국 → 일본 → 미국 → 싱가포르 순으로 유입 확대됐으며, 일본·싱가포르가 흑자전환, 한국은 순회수를 기록
 - * 국가별 세부 유입액(백만 달러): 홍콩 853.8('24.1Q. 131.8), 중국 628.2(693.1 → 감소), 일본 336.9(-89.2 → 흑자전환), 미국 309.0(605.9 → 감소), 싱가포르 243.5(-441.8 → 흑자전환), 한국 -340.0(순회수)

□ 태국의 對韓 투자 현황

- '24년 순유출 2억 2,000만 달러, '25년 1분기 소폭 순유출, '기타 서비스' 중심
 - (규모·추이)(Outflow·Net flow, BPM6)) '24년 연간 태국의 對한국 FDI 순유출은 약 2억 2,000만 달러(연간 합계) 수준이며, '25년 1분기는 소폭 순유출(약 90만 달러)로 분기 변동성이 큰 흐름

- (주요 투자 산업(개황)) 투자자 업종 분류상 '기타 서비스(Others)' 비중이 크고, 금융·보험, 부동산 등이 소규모로 뒤따르는 구조(세부 건수가 적어 일부가 'Others'로 집계되는 경향)
- (사례) 태국 CP그룹 계열 CP ALL의 한국 GOPIZZA 지분투자 1,000만 달러(2024.6.) : 리테일·F&B 연계형 전략 투자

□ 한국의 해당 주재국 투자 진출

- '23년 급증 이후 '24년 상반기는 제조업 중심으로 정상화
 - (규모·추이(신고기준)) '23년 2억 4,950만 달러/280건으로 '22년 대비 +1억 680만 달러, +73건. '24년 상반기 8,660만 달러/129건(연간 확정 미공표)이며, '23년 수준(2억 4,950만 달러)에 근접하려면 '24년 하반기 약 1억 6,290만 달러 추가가 필요
 - (주요 진출 산업) '24년 상반기 신고 금액 상위: 제조(3,064만 달러) > 금융·보험(709만 달러) > 건설(483만 달러) > 정보통신(469만 달러) > 숙박·음식(232만 달러)
 - (시사점) '22 → '23년에는 금액·건수 동반 증가로 외연 확대, '24년 상반기에는 제조 중심 구조 유지 속 서비스 부문 정상화 흐름

* '25년 2분기 수치 미공표

한국의 對태국 투자 진출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2024.2Q.		2025.2Q.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142.7	-107.4	249.5	+106.8	86.6	미정	미정	미정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07	+11	280	+73	129	미정	미정	미정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현대자동차, 태국 EV 시장 공략을 위한 조립·배터리 법인 설립

- (기업정보) 현대차 계열 현지 법인(Hyundai Mobility Thailand)
- (성공사례) 현대자동차(현대 모빌리티 타일랜드), EV·배터리 조립 법인 설립(BOI 승인)
 - 1억 바트(약 2,800만 달러) 투자로 BEV 및 배터리 조립 추진, 2026년 가동 목표, 현지조달 1/3 이상 조건이 충족해 공급망 내재화 기반 확보. 정부의 EV 3.5 정책 트랙과 연계
- (시사점) 동남아 EV 허브화 정책을 활용한 조립 → 수출 거점 전략에 적합. 부품·소재 동반 진출 파급효과 기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A사 라이브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

- (기업정보) 라이브커머스/LaaS 플랫폼 운영사
- (성공사례) 라라스테이션, Saha Group 자회사(Shop Global)와 MOU·지분협력—라이브커머스 'BIGXSHOW' 론칭
 - 2024.7.16. MOU와 함께 BIGXSHOW 플랫폼 공개, 이후 태국·일본 파트너와 인플루언서/라이브 커머스 얼라이언스 확대로 현지 유통망·트래픽 레버리지 확보
- (시사점) 대형 리테일 파트너십 + 플랫폼 결합형 진출 모델. K-소비재의 D2C·인플루언서 판매에 즉시 적용 가능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이노션, 경험형 리테일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운영 법인 설립

- (기업정보) 현대차그룹 계열 마케팅·리테일 경험사
- (성공사례) 이노션, 시암 피왓(Siam Piwat)과 협업—K-팝 팝업/경험형 리테일 확장
 - BTS 팝업(2024년 5~6월, 시암 파라곤), 세븐틴 프로젝트(2024년 1월) 등 콘텐츠·라이선스·F&B 결합형 매장 운영으로 관광수요와 Z세대 트렌드 흡수
- (시사점) 한류+리테일로 고객 체류 시간·객단가 증대 입증. 상설 매장·MD 테스트베드로 확장 가능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태국 외국인사업법(FBA), 외국인(지분 50% 초과 법인 포함)의 사업을 목록 1·2·3으로 구분해 제한
 - 목록 1 : 언론·쌀 재배·임업·토지 매매 등 전면 금지(허가 불가). 단, 외국인사업법 4조에 따른 외국인의 정의를 따라 과반 미만의 지분투자는 가능
 - 목록 2 : 안보·문화·자원 관련 16개 업종. 내각(Cabinet) 승인 및 상무부 장관의 허가와 함께 태국인 최소 40% 지분(특례 시 25%) 요건이 부과. 현재까지 실제 적용 사례는 없음
 - 목록 3 : 태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 중심 21개 업종. 상무부 산하 DBD의 외국인사업허가(FBL)로 100% 외국 지분도 가능하나, 신청 후 사전심사, 본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실무적으로 1년 정도 소요

태국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투자제한 업종 목록 1~3

분류	제한 업종	
	내용	업종
목록 1	외국인 전면 금지 (허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라디오 방송, TV 방송 관련 사업 • 쌀 경작, 농장 또는 작물 경작관련 사업 • 축산업

분류	제한 업종
내용	업종
<p>목록 2</p> <p>내각 승인+장관 허가 시 가능, 태국인 지분 40% (사유 시 25%) + 태국인 이사 2/5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및 자연산림으로부터의 벌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양식업이 아닌 태국 영해 및 태국 내 특별 경제 구역 인근 어획) • 태국 약초 채취업 • 태국 골동품 또는 유물 교역 및 경매업 • 불상주조 및 수도승용 공양기(monk alms-bowls) 제조 • 토지 매매(land trading) • 국가안보 관련 분야(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의 생산·판매·관리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관련 부품의 생산·판매·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판매·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판매·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 천연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업(무염 포함) - 암연 제조 - 광산 개발(암면 폭파 및 암석 분쇄 포함)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p>목록 3</p> <p>FBL(Foreign Business License) 취득 시 외국인 100% 가능, 소매·도매 자본요건 충족 시 FBL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분업, 수산업(양식업), 임업, 합판 제조업, 라임 생산 •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 •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 조항 별도) • 브로커, 에이전트업(예외 조항 별도), 경매업(예외 조항 별도) • 전통 농산물 관련 국내무역, 소매업(총 최소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또는 점포당 최소자본금 2 천만 바트 미만), 도매업(점포당 최소자본금 1억 바트 미만) •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 관광업,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
<p>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미국, 호주, 일본)의 기업인 경우 위 목록 1~3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사업인증(FBC : Foreign Business Certificate)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조약의 규정과 조건에 따름 • 목록 2, 3 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투자 촉진업종에 해당하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일부 예외사항 있음

자료: 태국 외국인사업법

- 금융업 진출 제한, 현지인 고용 의무, 더딘 행정처리 등에서 애로 발생

태국 현지투자 애로 사례

금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은 2013.7.2.~12.30. 기간에만 외국계 은행 신규지점 설립 신청을 허용했고, 신청 시 최소자본금 6억 달러(약 7,000억 원) 납입 요건을 부과 • 현재는 외국계 은행 신설 지점 신청 불가 상태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개 은행(산은·외환·하나) 철수, 이후 영업 허가 신규획득 사례 전무 • 관련 동향 : 산업은행은 '13년 사무소 개설, KB국민카드는 '21년 태국 여신전문금융사 J Fintech 지분 인수 → KB제이캐피탈 출범 • 제도 변화 : '25년 6월 태국 중앙은행(BOT)이 가상은행 3개 컨소시엄 예비인가 부여(예: SCB X-카카오뱅크) → 디지털 채널 기반 신규 진입 경로 신설
체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요건 : 외국인 1인당 자본금 200만 바트(일부 지점·지사 형태는 300만 바트), 태국인 4 : 외국인 1 고용 비율 충족 • 예외(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 승인 기업 : 업종·고용·기간에 따라 4:1 완화/면제 가능 - LTR(장기거주) 비자 : 4:1 면제(단, 200만 바트 완납 필수) • 일반 절차(비-BOI) : 재외공관 e-비자 → 입국 → 노동부 워크퍼밋 → 이민국 체류연장·리엔트리로 단계별 개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 처리기간 : 비자 3~10영업일(공관별 최대 15영업일 안내), 워크퍼밋 7~10영업일 - 실제 소요 : 번역·공증, 예약·방문, 보완 왕복 등으로 실제 총 기간은 더 길어지기 쉬움 • 단축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 + TIESC(원스톱) : 비자·워크퍼밋·리엔트리 일괄 연계, 방문·보완 루프 감축(BOI 전자승인 후 진행으로 예측 가능성 ↑) - LTR 트랙 : 디지털 워크퍼밋 적용으로 절차 단순화, 접수 후 수일 내 처리 안내이나 요건 충족·서류 완성도에 따라 변동
행정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관 관할(출입국·노동부·상무부·세무국) + 태국어 양식 + 사무소별 편차 → 왕복·보완으로 총 소요기간 장기화 우려 • 전자화 확대 : e-Visa, e-Filing 도입·확산 중 • 세무 환급(법인세·VAT) : 법정 처리기한 고시 부재, 절차·감사 여부에 따라 지연 가능 • 개선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 & e-Receipt) 인센티브 '25.12.31.까지 연장 → 전자증빙 확산 - 국세 e-Filing '기한+8일' 혜택 '27.1.31.까지 연장 → 신고·납부 동선 단축
외국인사업허가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BL은 외국인사업법(FBA) 근거, 금지 업종은 FBL 없이는 외국인 지분 50% 초과 불가 • 예외 : BOI 인센티브 승인 기업은 업종·조건 충족 시 외국인 100% 지분 허용 가능 • 애로 ① : 한국 금융기업의 진출 의사는 있으나, 외국인 지분 제한 FBL 요건으로 진입장벽 높음 • 애로 ② : 설령 FBL로 대주주 지위를 확보해도, 사업 확장·다각화 과정에서 규제 제약 큼 • 신상품·서비스 출시 시 상무부/사업개발국 : FBL(DBD) + 태국 중앙은행(BOT) 동시 승인 필요 • 두 기관의 감독 목적·이해관계 상이 → 의견 상충/절차 지연 빈번 → 적시 확장·신규 서비스 도입 어려움

2. 유망 산업

가. 전기차(BEV)·배터리·EV부품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태국은 동남아 대표 자동차 생산기지로, '24~'25년 정부의 EV 3.5 인센티브(보조금·관세 감면·법인세 혜택 등)로 BEV 내수/투자유입이 확대되는 추세임
- (최근 수출입 동향) 글로벌 수요 변동과 전동화 전환 국면에서 기존 내연기관 중심 수출은 둔화 압력이 있으나, 현지 완성차사의 BEV 생산 본격화로 부품 현지조달·수입 다변화 필요가 커지는 양상임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BYD : 라용 공장 가동('24년) 이후 태국 생산 BEV 공급 확대, 현지 밸류체인 참여 기업 기회 늘어남

(참고) 태국 EV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BY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7월 라용주 WHA 산업단지에 태국 첫 전기차 공장 준공·가동 시작(연 15만대 규모, 투자 약 179억 바트). 배터리·부품까지 포함한 통합 생산체제로 아세안 수출 허브 지향 • 2025년 상반기 태국 EV 시장점유율 약 50%로 1위 유지. 2024년 7월 현지 총판사 Rêver Automotive 지분 20% 취득으로 유통망·A/S 결속 강화 • 가격정책 이슈 관리 : 2024년 7월 대폭 할인 논란 후 총리-CEO 면담 및 보상 약속 → 2024년 11월 태국 소비자보호위 조사에서 불법성 없음 결론(유통사 Rêver에 일부 과태료). • 생산·고용 효과 : 공장 본격 가동 시 현지 고용 약 1만 명 창출 전망 • 입지/공급망 : 공장은 WHA 라용 산업단지 내 위치, 현지 부품 생태계와의 연계 강화 중

자료: Reuters(태국 EV 3.5 정책), Reuters(BYD 태국 공장), Reuters(FTI 2025 업계 전망).

□ 기회요인

- 배터리·모듈·열관리·충전 인프라·경량화 소재 등 한국 기업 강점 분야의 현지 파트너십/현지화 조달 니즈 확대 가능. EV 보조금/관세 혜택 연계 납품 구조 설계, 품질·원가 협업체계 구축 유망

나. 데이터센터·클라우드·디지털 인프라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2025년 들어 하이퍼스케일러의 태국 내 투자 가속. 정부는 대규모 FDI 유치·산업다변화 기조를 확인(BOI 신청액 10년 내 최고)
- (최근 수출입 동향) 서비스형 클라우드 수요 확대로 서버·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동반 확대되는 구조. 현지/역내 DC 구축이 빠르게 늘며 운영·유지보수·네트워크 장비 조달 기회가 커지는 추세임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빅테크(구글·MS)의 인프라 구축, 플랫폼 대형 투자(바이트댄스)와 로컬 확장(트루IDC)에 정부·BOI 승인 흐름이 겹치며 2024~2025년 태국 데이터센터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추세

(참고) 태국 EV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ByteD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월 태국 투자위원회(BOI)가 데이터센터(데이터 호스팅) 투자 1,268억 바트(약 38억 7,000만 달러) 규모를 승인.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기조와 맞물려 추진 중 • 부지 선정이 진행 중이며, 2026년 상업 가동 가능성이 언급됨. 이후 2025년 2월에는 태국 내 추가 투자(최대 88억 달러) 계획 언급으로 투자 스케일 확대 가능성 부각
Microsoft/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rosoft : 2024년 5월 '태국 첫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리전' 구축 계획 발표(나멜라 방콕 행사). Azure·AI 인프라 제공과 생태계·인재양성 동반 추진 • Google : 2024년 9월 '최소 10억 달러' 투자로 태국 첫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리전 구축 발표. 정부의 디지털 허브 구상과 연계해 인프라 투자 본격화
True I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월 발표 : 2024~2027년 100억 바트(약 3억 500만 달러) 이상 투자로 동부 방나(East Bangna)·무양팅(North Muangthong) 캠퍼스 증설, 전력용량 41MW 추가. 2025년 단계적 서비스 개시 예정(고밀도·액침냉각 등 AI 워크로드 대응 설계) • 2025년 5월 글로벌 인프라펀드(GIP)가 CP그룹과 파트너십으로 태국 데이터센터 자산에 '10억 달러+' 투자 발표. 로컬 사업자 생태계(CP 계열 포함)로의 자본 유입 확대 신호

자료: Reuters(바이트댄스·MS·구글·BOI 동향), True IDC 보도자료, DataCenterDynamics(자본 유입)

□ 기타

- 전력(재생에너지 연계), 냉각, 보안, 케이블링, 모듈러 DC, 운영 SW/모니터링 등에서 한국 기업 공급·협력 진출 기회 확대 가능. 정책적으로 대규모 FDI 유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장비·솔루션 패키지 진입 여지가 많음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현행 이슈) 태국, 아세안 회원국 또는 독자적으로 FTA 체결 및 확대 추진
 - RCEP 및 ASEAN 회원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16개국과 8개 FTA 체결
 -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페루, 칠레 6개국과 6개 FTA 체결
 - 스리랑카, EFTA, 부탄과 FTA 서명 후 발효 준비 중, EU, UAE, 캐나다 등과 신규 FTA 협상 중
 - '24년 7월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농수산물 시장개방 및 신기술 투자확대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트렌드 1) K-소프트파워 활용한 태국 소비재 시장점유율 확대
 - 태국은 경제 한류 동남아 중심국으로 한국산 소비재의 인기 지속, 식품과 화장품 등 FTA 활용 여지 높음
 - 화장품류(HS CODE 3304) 한-아세안 FTA 활용 시 무관세 수입 가능, 매년 활용률 80% 이상으로 활용 품목 상단 위치
 - '22년 발효된 RCEP 활용 시 일부 농식품 무관세 수입 가능, 해초류*, 딸기** 등 수입 규모 매년 증가 추세
 - * HS CODE 1212.21 기준 수입액(백만 달러) : '23년 62 → '24년 87(+40%)
 - ** HS CODE 0810.10 기준 수입액(백만 달러) : '23년 15 → '24년 17(+15%)
- (트렌드 2) 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 시장 공략
 - 태국, 아세안 국가 중 저출산·고령화 진전이 가장 빠른 나라로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 확산
 - 개·고양이용 사료(HS CODE 2309.10) 한-아세안 FTA 활용 시 무관세 수입 가능, '24년 태국 수입 규모 6,100만 달러로 3위 등극
- (유망분야) 태국 환경보존 정책에 따른 신시장 기회 활용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
 - '아세안 전기차 생산 허브'를 목표로 '23년부터 배터리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등 전기차 시장형성 초기 단계
 - EPA 체결 시 전기차, 재생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주요 부품 수출증가 및 태국 투자확대 전망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J사 태국 수출 초기 FTA 활용 지원 사례
 - 반려동물 데일리 케어 제품 수출을 위한 HS CODE 분류 및 한-아세안 FTA 활용
- 내용
 - (배경)
 - 1) 반려동물 케어 제품 유통업체 J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 태국 A사와 계약체결에 성공했으나 수출 경험 부족으로 HS CODE 분류 및 FTA 활용에 어려움 직면
 - 2) 정확한 HS CODE 분류 필요 및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전략이 시급했으나 경험 부족
 - (해결 및 지원 과정)
 - 1) J사는 KOTRA 방콕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에 자문 요청, 센터는 태국 기준 HS CODE 분류, 관세율·FTA 세율 비교를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 시 최대 20% 절감 가능 확인
 - 2)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필요 서류 교육, 원산지관리 전담자 역량 강화 지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사후 발급 절차 안내 및 관세 환급 가능성 제시
 - (성과) J사는 HS CODE와 FTA 활용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산지 판정·증명 역량 내재화로 지속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태국 시장 첫 진출 및 성공적 안착에 성공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FTA 활용은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신규 수출기업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
 - HS CODE 정확한 분류 → FTA 원산지 기준 검토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사후 발급 및 환급 절차까지 전 과정을 이해해야 안정적 수출이 가능
 -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용을 통해 현지 HS CODE 확인, 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 서류 교육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초보 기업의 수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음
 - J사 사례처럼 수출 초보 기업이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면 빠르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원산지관리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음

□ (G2G) 국가간 협력 유망분야

- 에너지·원자력 분야
 - '25년 3월, '한-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 원자력, 원전의 연구 및 기술 개발, 건설·운영 △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활용 △ 방폐물·안전 △ 인력 양성·대국민 소통 등을 포함
 -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원전 및 연구로 건설 프로젝트,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관련 분야 진출 여지 확보
 - 태국의 에너지믹스 다변화·산업용 방사선 응용 확대 수요와 연결 가능하며, 의료 허브 전략과 연계 시 동위원소 진단·치료, 멸균, 식품 감마선 처리 등 협력 분야 다수 존재

- 전기·전자 탄소중립 분야

- '25년 6월, KOICA-태국국제협력단(TICA)-태국산업부(MIND), 전기·전자 산업 탄소중립 역량 강화(MRV·에코디자인·냉매 전환 등)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아세안 역내 삼각협력 모델로 확장 예정
- 한국 정부의 600만 달러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우리 기업은 태국 전기·전자기술원(ETI)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 LCA, △ 친환경 소재, △ 스마트팩토리, △ 탄소관리 시스템 등에서 초기 시장 선점 및 이를 ASEAN 전역으로 확산시킬 전략적 기회를 확보

나. 프로젝트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분야) G2B, B2B 등

- 공공 인프라(교통·철도·도로)

- '25년 기준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EEC) 5개년 개발 계획을 통해 총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며, 상반기 외국인 투자액의 54%가 집중유입 되었고, 3공항 고속철도(2025년 착공, 2029년 개통 예정), 고속도로 확장,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핵심 인프라 사업 본격화
- (철도) '24년 5월, LS산전, 태국 국철(SRT) 177km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구축 수주와 같은 사례를 예시로 한국형 철도 신호·관제·안전 협력 가능
- (교통·도로) 태국 고속도로청(EXAT)-한국도로공사(KEC) 간 기술 협력 MOU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 기업의 스마트톨링·교통운영·유지관리 분야의 G2B 진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A사, AI기반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태국 내 납품 추진
- 내용 : KOTRA 방콕 '한-태 스마트시티 데이' 행사 참가를 통해 해당 기업은 현지 파트너사 발굴 후, 태국 교통경찰국(TPD)에 스마트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납품 추진. 조달청 혁신제품 해외 시범 구매사업에 선정되어 방콕 시내 12대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 교차로 현장 설치 및 연내 교통위반 단속 수행 예정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혁신제품 해외수출 기업' 선정 등 대외 품질 입증 및 신뢰도 확보 노력 지속
 - 조달청 사업 및 KOTRA 행사 등 지원사업 적극 참여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를 확보하며 G2B 수출에 성공

* 그 외 B사, 방콕광역시청(BMA)과 방콕 수도권 전후방 무인 단속시스템 도입사업 계약체결

- 스마트시티(거버넌스·교통·데이터)

- '25년 태국 스마트시티 분야는 '23년부터 연평균 약 13.1% 성장해 '28년에는 약 5억 3,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37개 도시(16개 주)를 스마트시티로 인증했으며, '27년까지 105개 인증 목표를 유지 중

태국 스마트시티 인증 도시 목록

주	인증 도시	특화 분야
방콕(Bangkok)	방콕 대도시권	교통, 보안, 환경 관리
차앙마이(Chiang Mai)	차앙마이 시, 매림	스마트 모빌리티, 관광
콘깬(Khon Kaen)	콘깬 시, 반펏	도시철도(LRT), 교통 허브
푸껫(Phuket)	푸껫 시, 빠통, 카투	관광, 헬스케어, 스마트 에너지
춘부리(Chonburi)	파타야, 람차방, 시라차	항만·물류, 관광
라용(Rayong)	마프타푃, 라용 시	EEC 산업 스마트시티
차츄사오(Chachoengsao)	차츄사오 시	물류, 스마트 인프라
나콘랏차시마(Nakhon Ratchasima)	나콘랏차시마 시	교통, 산업
나콘씨탐마랏(Nakhon Si Thammarat)	나콘씨탐마랏 시	환경, 스마트 행정
송클라(Songkhla)	햇야이, 송클라 시	남부 교통·상업 허브
피차눌록(Phitsanulok)	피차눌록 시	스마트 행정, 보건
수랏타니(Surat Thani)	수랏타니 시, 코사무이	관광, 환경 관리
우돈타니(Udon Thani)	우돈타니 시	교통, 상업
아유타야(Ayutthaya)	아유타야 시	문화유산, 스마트 관광
람팡(Lampang)	람팡 시	교통, 중북부 거점

- 민간 중심 투자도 활발하여, 동부경제회랑(EEC) 지역에만 약 6억 4,300만 달러가 유입되어 전체 스마트시티 개발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 KOTRA 방콕무역관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운영 중이며 매년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데이'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과 태국 정부 간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임

※ KOTRA 방콕무역관 추진사업

- (전시상담회) 2025 한-아세안 서비스테크·스마트시티 데이
- 협업기관 :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등
- 분야 : 스마트시티(교통, 재난관리, 디지털헬스케어 등), 서비스테크(에듀테크) 등
* 교통, 관제, 솔루션, 플랫폼, 재난방지 및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등
- 참가규모 : 국내기업 49개사
태국 바이어, 유관기관, 지방정부 등 135개사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국가 5개국 21개사 포함
- 프로그램 : 스마트시티 포럼, 전시상담회, MOU 체결식 등
- 주요성과 : 상담건수/상담액(309건/USD 1억 1,000만), MOU체결 9건, 언론보도 7건 등

• 디지털 전환(클라우드·사이버보안·AI)

- (클라우드) AWS는 '23년도 태국 방콕 리전을 개소하는 등, '37년까지 미화 50억 달러 투자 계획 등으로 태국 내 데이터 주권·저지연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Google 또한 '24년 태국 데이터 센터·클라우드 리전에 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는 등, 권역 내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네이버클라우드, 태국 Siam AI Cloud사와 LLM 및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MOU 체결
- (사이버보안) '25년 5월 진행된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ASEAN Cyber Shield Project'가 협력과제로 공동 채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주축으로 하여 표준화·공동대응·인재육성 등 계획, 역내 사이버대응 역량·표준화 협력 채널로 활용 가능

• 방산 및 국방(현대화·공동개발)

- '24년 8월, 한화-태국 국방연구소(DTI)-태국방산기업(Chaiseri), K200 IFV 성능개량 협력을 진행키로 하였으며, 산학연·MRO·부품 국산화형 협력으로 확장 가능
- 태국 공군, Gripen 12대 단계도입 계획(1단계 4대 예산 상정), 한국은 △ 유도무장, △ 전자장비, △ 정비, △ 훈련체계 분야 3국 협업 모델 제안 등 진출전략 수립 가능
- 그 외 태국은 '22년 LIG넥스원으로부터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을 도입 후 최근 '25년 6, 7월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 상황에 실전 사용하는 등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이에 도입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다. 공급망

- 참고 : 방콕 무역관은 '25년 공급망 거점 무역관으로 운영 중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3개 품목을 관리중

□ 천연고무(라텍스, HS 4001.10.0000)

- '25년 수출 확대·가격 완만 안정 기조, 대중국 비중 확대 가능
 - '25년 1~6월 라텍스 수출 증가세(전년 동기 대비 +10%대). 중국향은 급증, 한국향은 감소 경향
 - RAOT 기준 '25년 하반기~'26년 초 가격안정 기조 전망, 8월 평균 FOB가 1,300달러대 기록
 - 생산·내수는 일시 둔화('25H1 생산·내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로 수급 변동성 관리 필요

□ 천연고무(TSNR, HS 4001.22.0000)

- '25년 내수 회복 속 수출·수입 흐름 혼재, 對베트남·말레이시아 수입 비중 높음
 - '25년 1~7월 내수 소비 증가세
 - '25년 1~7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베트남(비중 9할대)·말레이시아 중심 조달구조 지속
 - 태국 상무부 산하 무역정책전략실(TPSO, Trade Policy and Strategy Office)는 '25년 수출 유망 10대 산업에 '고무'를 포함, 정책 관심도 높음

□ 안티모니(HS 8110/2825/2617)

- 미얀마-중국 축 의존 심화와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 태국은 산화안티모니·분말 중심 다운스트림 수요 확대
 - 태국의 안티모니 산화물 수입은 '25년 1~7월에도 중국 중심으로 확대(전체의 8할대 후반), 수출은 미국·일본·EU향이 확대되는 추세
 - 안티모니 분말(8110.10) 수입은 '25년 1~7월 급증, 미얀마·베트남이 주공급국으로 부상
 - 광석·정광(2617.10)은 '25년 1~7월 수입이 크게 증가, 미얀마 원료 의존도가 9할대 초반으로 높음
 - 한국은 5위권 수입국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6
2. 진출전략	48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정치적 불확실성) 2025.8.29. 패통단 해임 → 2025.9.7. 아누틴 총리 취임·'4개월 내 하원 해산' 공언. 2026회계연도 예산은 2025.9.2. 상원 최종 통과(국왕 재가 대기)로 '예산 지연 위험'은 완화, 다만 조기 총선 변동성은 상존
- (산업정책 유지) 전기차 인센티브 패키지 무공해차 전환 정책(EV3.5), 동부경제회랑(EEC),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육성 기조 지속, 12대 미래산업 집중
- (규제·조달) 외국인사업법/외국인사업허가(FBA/FBL) 지분·업종 제한, 태국산 인증·국산우대(MIT), 태국 식품·의약품청(TFDA)·방송통신위원회(NBTC)·태국 산업표준원(TISI) 등 사전 인허가 부담 상존



경제(Economic)

- (저성장·하방 위험) 2026년 실질성장률 1.6~1.7% 전망, 대(對)미 관세 충격 시 0.4% 하방 가능
- (수요·투자 제약) 가계부채 85~90%대, 민간투자 부진, 관광 회복 불확실성
- (무역의존도) 교역의존도 129~137% 내외, 전기기기·기계·차량 중심의 가공무역 구조



사회문화(Social)

- (고령화 심화) 65세 이상 비중 15%대, 10년 내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소득·가치소비) 1인당 가처분소득 완만 증가, 웰니스·클린라벨 선호 확대
- (한류 확산) 콘텐츠 영향으로 K-푸드·K-뷰티 소비 확산, 현지화 트렌드 뚜렷
- (모바일 우위) 라이브커머스·직접판매 제조사 → 소비자 직접판매(D2C) 활성화, 편의점·모던트 레이드 채널 영향력 확대



기술(Technological)

- (디지털 인프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확대·전력·냉각·보안·장비 수요 증가
- (EV 전환) BEV 생산·충전 인프라 확장, 전장부품·배터리·열관리 수요 증가
- (스마트 물류) 전자 인도지시서(D/O), 트럭 예약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국가단일창구(NSW) 등 물류 운영 IT 고도화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전장·전자·인쇄회로기판 인쇄회로기판(PCB)·자동화 등 기술경쟁력과 높은 품질 신뢰
- K-브랜드·콘텐츠 연계 마케팅 자산
-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및 원산지관리 역량

약점(Weakness)



- 외국인사업법/외국인사업허가(FBA/FBL)·인증·검역 등 규제 대응 리드타임 장기화
- 태국어·현지 영업/사후서비스 인프라 부족
- 중국·현지 대기업 대비 스케일·가격 경쟁 한계
- 내수·관광 변동성에 따른 수요 탄력성 부담

기회(Opportunity)



- 태국투자청(BOI)·동부경제회랑(EEC) 인센티브 및 메가프로젝트 본격화
- 무공해차 전환 정책(EV3.5)에 따른 밸류체인 수요 확대
- 데이터센터·클라우드·스마트시티 수요 급증
- 고령화·웰니스·가치소비·한류 확산

위협(Threat)



- 정치 불확실성·정책 급변 가능성
- 對미 관세·보호무역으로 FDI·수출 심리 위축
- 태국산 인증·국산우대(MIT), 원산지 단속,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 중국 저가·일본 내연기관 생태계 등 공격적 경쟁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데이터센터·클라우드·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 확대
- EV·전장·PCB 패키지로 동부경제회랑(EEC)·태국투자청(BOI) 트랙 선점



디지털·EV 동시
공략으로 EEC·BOI
선점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K-콘텐츠·패키징·로컬 플레이어로 프리미엄 소비재 차별화
- 현지 생산+아세안 수출 허브로 관세·정책 변동 분산



현지생산+K-콘텐츠로
프리미엄화·정책분산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저출산·고령화 대응 실버케어·디지털헬스·펫케어 신시장 확장
- 합작법인·OEM 및 대형 유통/에너지 체인 협업으로 네트워크·사후서비스 보강



합작·OEM·현지화로
파일럿 → 양산 확장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친환경차 후방 공급망·충전 인프라 조기 진입으로 저가 경쟁 회피
- 다중공급·환리스크 관리와 사전 인증으로 정책·무역 리스크 완충
- 전기차 충전 통신규격, 개방형 충전 표준 통신규격(OCPP) 등 표준 준수로 교체비용 최소화



다중공급·환해지·
OCPP·사전인증으로
리스크 완충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투자청(BOI) 인센티브와 위탁생산·합작법인으로 파일럿 → 매장 입점 → 양산단계 확장 • 신규 식품 규정과 식약청 표시 요건을 선제 충족 → 온라인 직접판매로 검증 후 편의점·모던채널 확대
교육·에듀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경제사회부(MDES)·디지털경제진흥원(DEPA) 프로그램과 공동개발·투자 연계로 공공부문 진입 • 현지 교육기관 연계 사회공헌 파일럿 → 모바일 최적화와 태국어/영어 이중 언어로 확장
웰니스·실버케어 헬스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스타트업과 원격모니터링·건강데이터 서비스 공동개발 및 현지화 • 웰니스 리트리트 상품을 기획해 아세안 대상 패키지 마케팅 강화
스마트 모빌리티· 물류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택배·쇼핑몰·주유소 체인과 단기 시범 구축 후 동일 네트워크로 확대, 견적 단계에서 서비스 수준과 유지보수 조건 명시 • 개방형 충전 표준을 적용하고 동부경제회랑(EEC)·태국투자청(BOI) 연계로 현지 생산과 아세안 수출을 구조화

전략 ①

푸드테크·대체단백질 등 미래 식품산업 신성장 기회 활용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대체단백·미래식품이 편의점/모던트레이드까지 확산(CP Foods 'MEAT ZERO' 상시 유통, THAIFEX 2025서 미래식품 부각). Thai Union은 OMG Meat·식물성 해산물·배양육 협력 등으로 포트폴리오 확대

* 정부는 BOI 인센티브(최대 8년 법인세 면제, 관세·전문인력 우대)로 R&D·생산 유치, 보건부 Novel Food 고시(제376호)로 안전성 심사·표시 요건을 명확화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발효·배합·HMR 역량과 K-브랜드를 결합한 고단백·저나트륨·클린라벨 컨셉으로 편의점·모던·외식 채널에 빠른 테스트 → 확장 가능(대체 해산물·치킨/포크의 한식 응용 SKU)

* BOI + 현지 OEM/JV·유통 파트너로 초기 리스크·리드타임 최소화, Novel Food·TFDA 라벨링 선제 준수로 규제 리스크 관리(D2C/라이브커머스로 시장 검증)

□ 현지 동향

- 수요 확대 + 현지 대기업 주도 시장 확대

- (시장규모/성장) 태국의 식물성·대체단백 시장은 약 450억 바트(약 13억 7,000만 달러) 규모로 2025년 추가 10% 성장 전망. '건강+편의' 트렌드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국면

- (채널 안착) CP Foods의 MEAT ZERO가 7-Eleven·Makro·Lotus 등 모던트레이드 전 채널에 입점해 접근성이 높고, THAIFEX 2025도 'Future Food/Alternative Protein' 트렌드를 전면 배치

- (현지 기업 포트폴리오 확대) Thai Union은 OMG Meat·식물성 해산물 라인과 더불어 글로벌 파트너십(배양육 등)을 확대하여 대체단백 비즈니스를 다각화 중. 협업형(프라이빗 라벨·OEM) 기회가 증가

- 진입환경 개선(인센티브·규제 명확화) + 현지 생산 허브 조성

- (BOI 인센티브) 미래식품·하이밸류 푸드 분야에 대해 프로젝트 유형별 최대 8년 법인세 면제, 관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R&D·제조 유치가 가속

- (규제) 보건부 Novel Food 고시(제376호)로 신소재·신공정 식품의 사전 안전성 심사·표시 요건이 명확화되어 절차 예측 가능성 제고

- (현지 생산 거점) PTT(Innobic)-NRF 합작사 NRPT가 Plant & Bean과 협력해 아유타야에 대체단백 생산시설을 가동, 태국 내 OEM/JV 기반 원가·리드타임 개선 여건 형성

태국 미래식품 대표기업의 대체단백질 분야 사업 확대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CP Foods(MEAT ZERO)	식물성 단백질 브랜드 MEAT ZERO 론칭 → 세븐일레븐 등 전 채널 유통, 2025년 THAIFEX에서 '지속가능 혁신' 콘셉트로 대체단백·신제품 라인업 확대
Thai Union(OMG Meat)	OMG Meat·식물성 해산물 제품군 출시, Strategy 2030에 대체단백 비즈니스 포함, 블루날루·Aleph Farms 등과 파트너십 확대

자료: 기업 홈페이지

□ 유망 품목

- 대체 해산물(식물성 새우·게맛살·참치/연어 스타일) - '건강·편의' 트렌드와 로컬 메뉴 대체재 전략
 - 태국 수산 대기업의 포트폴리오 확장 수요와 '건강+편의' 트렌드에 부합. 김밥·주먹밥·비빔면 토핑 등 한식 응용 SKU로 빠른 진입 가능(냉장·냉동 모두 대응)
 - 현지 인기 메뉴(가이텃·무사텃·바질라이스 등)의 단백질 대체재로도 적합. 기존 로컬 브랜드 대비 고단백·저나트륨·클린라벨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 확보 가능
- 기능성 스낵/음료(고단백·식이섬유·프로바이오틱) - '가치소비'와 간편성 결합
 - 편의점·모던트레이드에 적합한 소포장·RTD 중심으로 전개하되, 특정 기능성 성분은 Novel Food 적용 여부 사전 점검(표시·알레르겐 라벨 준비)으로 리스크 최소화

□ 진출전략

- 규제·표시제 선행 대응 - Novel Food·TFDA·할랄 요건 사전 확보
 - 신성분·신공정은 Novel Food(보건부 고시 376)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제품 개발단계에서 원재료·영양·알레르겐·태국어 라벨(필요시 할랄)까지 패키징화. 수입 → 판매 또는 현지 생산 前 전성분/공정/원산지·클레임(고단백·저나트륨 등) 근거 자료를 정리해 심사·통관 리스크를 최소화
- BOI 인센티브 + 현지 파트너 모델 - 초기 비용·속도 동시 확보
 - BOI 프로모션(법인세 면제·관세 감면·전문인력 우대)을 우선 검토하고, 유통 대기업·OEM/JV와 결합해 파일럿 생산 → 리스팅 → 양산으로 단계 확장. 수입 대비 현지 생산의 세제·물류·리드타임 이점을 비교해 최적화(IEAT/산단, 콜드체인 포함)
- 현지화 포지셔닝 - 태국 로컬 플레이어 × K-시그니처
 - 톰얌·홀리바질·라보 등 로컬 맛 프로파일을 한식 시그니처와 결합한 전용 레시피를 개발하고, 고단백·저나트륨·클린라벨·지속가능 소재 등 건강·가치소비 메시지를 명확히 제시. 향후 소금세 논의 등 규제 변화는 품목별 나트륨/표시 기준으로 선제 대응

- 브랜딩/채널 믹스 - B2B 전시 → D2C 테스트 → 모던트레이드·외식 확장
 - THAIFEX 등에서 바이어 소싱 후, 라이브커머스·마켓플레이스(D2C)로 맛·가격대·팩사이즈를 A/B 테스트하고, 성과 SKU는 편의점·하이퍼/슈퍼·푸드코트·QSR로 확장. 채널별 목표가·프로모션 캘린더·리드타임·재고 회전 KPI를 설정해 손익/회전 최적화

전략 ②

콘텐츠와 에듀테크 융합을 통한 교육·문화 신시장 선점



전략 수립 배경

- 팬데믹 이후 교육분야 디지털화 가속, '27년까지 디지털 전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목표
* 정부 차원의 교육 투자 확대, 정부 주도의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시행 중
- 한국 디지털 기술에 우호적인 현지 여건 활용, 태국의 높은 교육열 타깃 대입 관련 교육서비스, 성인 대상 직무역량 강화 및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서비스 진출 적기
* 아세안 6개국 국민 대상 對韓 주요 현안 설문결과(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23.2월) ①기술개발 협력(59.5%) ②관광교류(51.8%) ③기업 투자유치(43.5%) ④문화교류(41.3%) 순

□ 현지 동향

- (시장) 태국 온라인 교육 시장규모는 '24년 기준 약 5억 5,6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4.5% 성장하여 '33년 약 39억 8,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24, imarc)
 - 에듀테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서비스를 총칭'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관련 분야 태국 시장은 약 10억 달러로 추산('23, nexdigm)
* 태국 전체 교육시장은 약 220억 달러 규모이며, K-12 시장이 약 70%를 차지
- (정부) '27년까지 디지털 전환 글로벌 선도국가인 「Digital Thailand」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 정부 주도의 교육산업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 중
 - 태국 교육부는 공교육 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Anywhere Anytime 프로젝트('26~'31년, 9억 달러 규모)를 도입, '25년 중 고등학생 60만 명에게 태블릿 및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고등학생 120만 명 및 중학생까지 확대 제공 추진
* 2차 디지털 경제사회 발전계획('23~'27년, Thailand Digital Economy and Society Development Plan)
- (기업) '25년 7월 기준, 태국에는 약 140여 개의 에듀테크 기업이 활동 중으로 총 투자유치 금액은 350만 달러 규모 수준
 - 2014년도 설립된 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언어 수업 제공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인 Globish Academia社가 '22년 약 250만 달러 투자를 유치
 - 태국 최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SkillLane社는 태국 에듀테크 기업 최초로 MAI(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 상장을 위한 IPO를 준비 중

□ 유망 품목

- 높은 교육열을 반영한 대입 관련 교육서비스, 성인 대상 재교육 및 자기 계발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관련 분야 교육서비스
 - STEM, 코딩 및 비대면 학습 확대, 트렌드에 맞춘 한국어·영어 등 언어 관련 AR·VR 콘텐츠, 교육 플랫폼, 스마트 교육용 제품 등
 - * 태국 교육부는 '24년 7대 주요 교육정책에 STEM 교육 및 코딩교육을 포함
 - 직장인들의 직무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업스킬(Upskill)과 새로운 역량 학습을 위한 리스킬(Reskill) 관련 교육서비스

□ 진출전략

- 투자 진출 및 기술 개발 협력 방식으로 태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관심 및 자금투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진출 고려
 - *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MDES)는 연간 10만 명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Coding for Better Life : 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ailand's Future'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1,500개 학교에 디지털 교실 및 코딩교육 지원 추진
 - * 디지털경제진흥원(DEPA)는 코딩 커리큘럼을 개발, 3천 명 교사 대상 코딩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 지역의 디지털 교육 확산, 국제 코딩대회 개최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기반을 조성 중
- 현지 교육 관련 기관(IAFSW 등) 및 플랫폼(AES Thailand) 등을 활용하여 태국 학생 대상 CSR 등 추진, 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샘플 제공 등으로 시장성 확인 후 진출
 - * 태국 국제미래 STEM 교육협회(IAFSW) : STEM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개발 및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협회로 초·중등 STEM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지역학교 지원, 디지털 전문교육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이 주요 업무이며, KOTRA, 국내 에듀테크 기업과 함께 '22년 태국 교육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CSR 인재육성 캠프, '23년 5월 '동남아 서비스 해외 진출 파트너링' 행사 등을 공동 주관. '24년 및 '25년 한-아세안 에듀테크 세미나'에 태국 교육기관 관계자 50여 명 초청 지원. 국내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비상교육, 웅진씽크빅, 타임교육, 윤선생, 콘센트에듀, 로지브라더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 아시아 교육과 기술 기관·기업들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관인 AES(Asia Edtech Summit) Global의 태국 지부로, '24.6.10.에 설립됨. 중국, 베트남, 일본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37개), 일본(10개), 중국(6개), 베트남(7개) 교육 관련 기업, 대학, 기관 등이 참여 중

태국 에듀테크 시장 진출 사례

기업명	진출사례
메가스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태국에 합작법인인 메가에듀테크를 설립 후 한국과 동일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 • 태국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전 과목 강의를 운영 중 • '22년 7월 오프라인 학원(SiamScape)을 개설했으며, '22년 9월 태국 대학교 입학시험인 TGAT 강좌 전 시간 마감을 달성하며 인기몰이 중
비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 태국 한국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한국어 원격 스마트러닝 솔루션 '온 클래스'(On KLaSS) 제공 • 온 클래스 콘텐츠는 태국의 한국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실시간 원격 수업이 가능한 줌(Zoom), 웹엑스(Webex) 등 화상 시스템을 결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수업 가능 • 이외에도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챌린지, 엘리프가 공교육 시장에 진출
타임교육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임교육 C&P는 비즈니스 상담회 등 현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기관 대상 샘플 제공으로 시장성 확인 후 수출추진 중 • 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있는 '팩토 Toy 사이언스'는 48가지 실험을 포함한 과학교구로 태국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 태국은 모바일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매끄러운 언어환경(태국어·영어) 제공도 필요

전략 ③

웰니스 허브 연계 실버케어·헬스테크 융합 신시장 공략



전략 수립 배경

- 태국 웰니스 시장은 2022년 316억 달러 → 2023년 405억 달러로 28.4% 성장
 - 2024년 디지털 헬스 시장 약 3억 8,200만 달러 → 2030년까지 12억 8,600만 달러 목표, 연평균 성장률 22.7%
 - 태국 내 헬스테크 스타트업 319개 이상, AI·원격의료 등 중심으로 확산 중
- 태국 정부의 '웰니스 허브' 정책 추진(웰니스, 의료서비스, 상품, 컨벤션 등 5대 축)
- 한국 기업들의 태국 의료기기 수출증가 추세 지속 활용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의 실버케어 및 헬스테크 노하우와 태국 웰니스 허브 인프라 간 시너지 기대

□ 현지 동향

- 태국의 의료·웰니스 관광 규모 절정
 - 2024년 315억 달러 → 2034년 1,101억 달러 예상, 해당분야 연평균 성장률 13%에 달함
- Wellness Economy 5.0* : 웰니스 관광, 건강식, 뷰티, 피트니스 중심 성장 중
 - * 태국 보건부(DHSS), 태국 투자청(BOI) 등이 참여하는 국가 정책 슬로건
- ASEAN 대상 웰니스 패키지 프로모션 진행
 - ASEAN 회원국 간 비자 면제 협정 기반, 태국은 의료·웰니스 허브로서 주변국 환자 및 관광 수요 흡수 가능한 구조적 이점 활용
- 푸켓·방콕 중심으로한 스마트 의료·웰니스타운 조성 계획
 - (푸켓) 약 23만㎡ 규모 Phuket Smart Health City와 Andaman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조성을 통해 의료·R&D·웰니스가 결합된 국제 의료 허브 구축 중
 - (방콕) 방락군 후아이야이 지역 내 총 37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정밀 의료·R&D·5G 인프라가 결합된 차세대 산업·의료 복합도시 개발 중

태국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사업 확대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네이버클라우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 우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8월) 셀프구강검진 어플 등 국내기업 9개사-바이어 50개사 매칭 지원 - ('22년 12월) 음분석서비스 등 국내기업 9개사-바이어 39개사 매칭 지원 - ('23년 12월) 원격진료앱 등 국내기업 10개사-바이어 37개사 매칭 지원

□ 유망 품목

- 실버 맞춤형 디지털 헬스 플랫폼
 - 원격진료, 건강 모니터링, 예방 건강 콘텐츠, 태국 현지 언어·식문화 반영 앱 등
 - 헬스테크 관련 분야 성장률 22.7%, 스타트업 활성화 뒷받침
- 웰니스 리트리트* 기반 시니어 영양·운동 프로그램
 - 전통요법+스마트 진단, 시니어 심신 맞춤 콘텐츠, K-뷰티 통합 콘텐츠 등
 - * 명상·피트니스·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해 신체·정신 건강을 회복·강화하는 체류형 웰니스 관광 형태

□ 진출전략

- 현지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기술 현지화 전략
 - 한국 기업은 현지 헬스테크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
 - 원격 모니터링, 건강데이터 기반 예측 서비스 등, 스타트업 319개 기반 활용
- 웰니스 관광 인프라 연계 마케팅 및 패키지 론칭
 -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웰니스+헬스케어 통합 리트리트 상품 기획
 - 중국, ASEAN 회원국 등 비자면제 협정에 따른 주변국 수요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 정부 정책 연계 및 ASEAN 마케팅 활용
 - ‘웰니스 허브’ 정책과 의료관광 인센티브 활용, 글로벌 컨퍼런스, KOTRA 방콕무역관 주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비즈니스 상담회 적극 참가 등

※ KOTRA 방콕무역관 추진사업

- (비즈니스 상담회) 2025 태국 메디컬로드쇼
 - 협업기관 :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카톨릭대학교
 - 분야 : 미용·성형, 디지털헬스케어, 시기능 보조 의료기기 등
 - 참가규모 : 국내기업 42개사
바이어 38개사(태국 대형 병원, 의료기기 유통사 등)
 - 주요성과 : 상담건수/상담액 : 218건/USD 1,000만 등

전략 4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물류 디지털화



전략 수립 배경

- 태국은 완성차·부품의 아세안 허브로서 전기차(EV) 생산 거점을 빠르게 확대 중이며, 쇼핑몰·주유소·고속도로 거점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가 전국적 네트워크로 확산되는 추세임
- 항만·세관·선사 간 문서교환의 전자화, 항만 차량 예약(트럭 큐) 등 운영 IT가 고도화되며, 입·출항 및 내륙 운송의 리드타임 단축과 오류율 개선이 진행 중임
- 고속철·항만 확충 등 광역 물류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병행되면서, “하드웨어(설비) + 소프트웨어(운영·결제·데이터)” 융합형 솔루션 수요가 증가함
- 우리 기업은 전장부품·충전 설비·물류 소프트웨어 역량을 묶은 패키지형 제안으로 초기 진입장벽(인증·인허가·설치공사·운영)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함

□ 현지 동향

- EV 생산·시장
 - 중국계 OEM의 현지 투자 본격화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며, 정부 인센티브 보완으로 ‘수출 물량’도 생산 요건에 산입되는 등 내수 변동성에 대한 완충장치가 마련됨
- 충전 인프라
 - 공공 충전 거점과 커넥터 수가 지속 증가하며, 쇼핑몰·오피스·레지던스 등 상업시설 중심의 AC 충전과 고속도로·도심 거점의 DC 급속 충전이 혼합 확산되는 구조임
- 물류 디지털화·스마트 항만
 - 국가 단일창구 기반 전자 전달(전자 D/O) 상용화, 라엠차방항 트럭 큐 의무화 등으로 항만 체선·체화 리스크 완화, 수입·환적 화물의 회전율 개선 기대
- 광역 연계 인프라
 - 라오스 경유 태·중 고속철 연결 계획 등으로 내륙 운송의 시간·비용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며, 콜드체인·라스트마일(고객 문앞·가게까지 배달되는 최종 단계) 연동 수요가 확대됨

□ 유망 품목

- EV·충전 인프라(설비·운영 소프트웨어 일체형)
 - 120~400kW급 DC 급속충전기, 멀티건(HPC) 장비, 상업시설용 AC 월박스 등 설치 환경별 표준 사양 제안

* 대형 물·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는 고부하 급속(HPC), 도심·레지던스는 AC 중심으로 수요가 분화됨

- 개방형 충전 프로토콜(OCPP 2.0.1) 지원 백엔드, 결제·로밍 연동, 실시간 부하관리·수요반응(DR) 기능
 - * 전력피크 억제와 요금 최적화가 가능한 운영 SW 수요가 증가하며, 카드·QR 등 현지 결제수단 연계가 필수적임
- 설치·시공·검수까지 포함한 EPC 턴키 및 유지보수(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 * 전기안전·검정(TISI 및 전력공사 요건) 대응, AS SLA 명시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패키지형 공급이 선호됨
- 스마트 물류·항만·운송 IT
 - WMS/TMS/YMS 등 창고·운송·야드 운영 SW와 항만·국가단일창구(NSW)·트럭 큐 시스템 간 API 연동 커넥터
 - * 전자 D/O, 전자세금계산서, e-문서 자동화 연계를 통해 서류 오류·대기 시간을 동시 절감함
 - 텔레매틱스·AI 대시캠·연비관리, 콜드체인 IoT(온습도·e-Seal)
 - * 사고·연료비·파손률 저감을 KPI로 한 성과형 과금(절감액 공유) 모델에 적합함
- 창고 자동화·풀필먼트 장비
 - (핵심 설비) 자율주행 로봇(AMR)·무인 운반차(AGV), 셔틀·자동창고시스템(AS/RS), 소형화물용 자동분류기, 비전(영상 인식) 기반 피킹 시스템
 - * 전자상거래(택배·풀필먼트) 물량이 급증하면서,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이·더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수요가 확대됨
 - ** 피킹 오류 감소, 단위 시간당 처리량 증대, 야간·무인 운영 등으로 인건비와 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음
 - (운영 소프트웨어) 창고관리시스템(WMS), 운송관리시스템(TMS), 야드관리시스템(YMS) 연동
 - * 입·출고, 피킹, 적치, 상·하차 예약을 한 화면에서 관리하여 병목을 최소화하고, 작업자 동선과 장비 가동률을 최적화함
 -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 후 배터리 2차 활용 포함)
 - * 전력 피크시간대에 저장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을 낮추고,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냉장·냉동창고를 보호함

□ 진출전략

- 현지 파트너십·시범사업 → 단계 확장
 - 항만·택배·쇼핑몰/주유소 체인에 3~6개월 시범 구축 후 동일 네트워크로 확대
- 인증·인허가·보안·유지관리 선(先) 구축
 - 전기안전·산업표준 사전 확인, 전력회사 협의, 결제·개인정보 보안 점검
 - 견적 단계에 공사 범위·서비스수준협약(응답·복구) 명시
- BOI·정부 프로그램 연계, 수출형 설계
 - 세제·관세·인력·R&D 지원을 묶어 “현지 생산 + 아세안 수출” 구조화
 - 내수 변동 대응을 위한 제품 라인업 다변화



해초류 가공식품(미역·다시마·켈프누들 등)

- 선정사유**
- 태국 식물성·미래식품 시장이 '25년 4,500억 바트 규모(+10% 전망)로 확대 중이며, 건강·윤리소비 중심의 '플렉시테리언' 수요가 늘어 해조 기반 대체식·저칼로리 면에 기회가 큼
 - 정부가 나트륨(소금)세 도입을 예고('25년 단계적 도입 방향), 음·식료 제조사에 저나트륨 전환 압력이 커져 해조·곤약·알지네이트 기반 저칼로리/저나트륨 면 수요 확대 예상
 - 편의점 채널(세븐일레븐)이 전국 1,5000개 이상('24년 말 15,245점, '25년 5월 15,430점)으로 제품 테스트·확산에 유리
- 경쟁동향**
- CP Foods(Meat Zero), Thai Union(OMG Meat) 등 대기업이 대체단백·지속가능 식품 라인업을 확대(THAIFEX 2025에서 지속가능·헬시 푸드 전면)
 - 타오카노이(Tao Kae Noi)가 해조 스낵 시장점유율 +70%로 로컬 해조 가공 역량과 유통 파워 보유. 태국산 'Kaiso' kelp noodle 등 로컬·수입(Sea Tangle 등) 동시 경쟁 구도
- 진출방안**
- (제품 포지셔닝) "저나트륨·고식이섬유·클린라벨" 콘셉트로 미역/다시마 면, 해조 토핑 키트 (김밥·비빔면·주먹밥용) 출시. 소금세 리스크 대비 나트륨 함량 단계형 라인업 운용
 - (채널 전략) THAIFEX 등 B2B로 바이어 발굴 → 세븐일레븐 한정 SKU·온라인(D2C/라이브) 파일럿 후 모던트레이드 확장
 - (파트너링) 로컬 대기업(유통·OEM)과 JV/공동브랜드 검토, 현지 원재료(열대 해조·곤약) 조달로 원가·관세 최적화

화장품(스킨케어·선케어·메이크업)

- 선정사유**
- 태국 뷰티/퍼스널케어 소매시장은 '24년에도 견조한 성장(기초·색조·선케어 수요) 추세. '24년 시장규모 약 33~34억 달러 전망 자료 존재
 - 한국산(HS 3304)의 對태국 수입액 '24년 1억 5,000만 달러로 상위 공급국 중 하나(스킨케어 강세) → K-뷰티 신제품 수용성 높음
 - 세븐일레븐 1,5000점·미니 사이즈 선호 등 특유의 채널 구조가 소포장·합리적 가격 프리미엄 전략에 적합
- 경쟁동향**
- 카테고리 기준 화장품·향수·화장용품(HS33) 수입이 '24년 약 20억 달러(TE 집계)로 대형 수입시장. 한국·프랑스·일본 등이 주요 공여국
 - 현지·글로벌 브랜드가 선케어·잡티케어·민감성 영역에서 제품 다변화, 이커머스·편의점 옴니채널 강화

진출방안

- (현지화 포물러) 고UV 환경 대응 PA/UVB 차단, 저자극·노닐클로겐 스킨케어, 트로피컬 기후 지속력 메이크업
- (패키징/가격대) 미니·샤셰(세븐일레븐형)와 본품(모던트레이드형) 투트랙, 할랄·태국어 라벨 선반영
- (마케팅) K-셀럽/인플루언서·라이브커머스 → O2O 전환(편의점 픽업), 피부과/약국 채널 더마 협업으로 신뢰도 확보

라면(인스턴트 누들·프리미엄/매운맛/건강 콘셉트)

선정사유

- (태국 라면 소비) '24년 40억 8,000만 인분(세계 9위). '레드(매운맛)·간편식·솔로다이닝' 트렌드가 지속
- 수입 라면(HS 1902)에서 한국산 점유율 '24년 56%(3,600만 달러)로 수입 세그먼트 리더 위치 유지. 프리미엄/이색맛 수요에 적합

경쟁동향

- 내수는 MAMA(약 47.6%)·WAIWAI(23.7%)·YUMYUM(15.4%) 3강 체제(가격 규제·유통 장악)로 경쟁 치열. 수입 프리미엄은 니치·한정판 중심으로 성장

진출방안

- (제품 전략) 프리미엄 매운맛(K-핫)×태국 로컬 플레이버(통암·홀리바질 등) 협업. SKU, 저나트륨 레시피/소금세 대응 라인 신설
- (가격·포장) 컵/멀티팩 혼합, CVS 한정판·굿즈 연계로 프리미엄 지불의사 견인
- (채널/홍보) 세븐일레븐 선런칭 → 하이퍼·이커머스 확장, K-콘텐츠 연계 캠페인(먹방·챌린지)로 반복 구매 유도

의약품

선정사유

- 고령화·만성질환(NCD) 증가로 중장기 수요 확대
- 보편적 의료보장(UHC), 메디컬 투어리즘·웰니스 확대와 전자심사 허브 개소('24년), BCG 경제 모델 등 의약품 유통 및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의약품 시장 성장 촉진 노력

경쟁동향

- 약가·조달 효율화로 제네릭 사용 확대 기조 강화
- WHO 사전적격(PQ), GPO-DNDi 협력 등으로 현지 제네릭 품질·공급 역량 상향
- 수입 의존 유지, 수입 증가율 0.25~1.50% 전망

진출방안

- 태국 내 주요 관련 전시회 지속 참가를 통한 브랜드 노출로 제품 인지도 제고 필요
- 의료 관련 학회, 의사 대상 세미나 개최 및 후원 등을 통한 고객 확보
- 태국 FDA 인증 절차 진행 전 수입상 또는 인증 대행업체를 통한 필요서류 사전 확인 필요

프린트드 회로기판(PCB)

- 선정사유**
- 전자 수출이 '25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9.8% 증가, 특히 반도체·PCB분야에서 뚜렷한 성장세
 - 태국은 글로벌 전자 공급망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EV·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고기능성 PCB 수요 증가가 중기 수요 요인
 - BOI, PCB 전공급망으로 인센티브 확대(적층·드릴·도금·패터닝·검사 등 공정과 CCL·FCCL·프 리프레그·필름류 등 소재까지 포함, 관련 외국기업 유입 확대)
 - 전세계적인 클라우드·AI 가속화에 따라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센터 향 對태국 수출 유망
- 경쟁동향**
- BOI 승인 48개 프로젝트, 투자 2,000억 바트+로 증설 가속
 - 전자·PCB 생산 6%대 증가, 서버·전장용 고사양 수요 확대
 - 생산물량 약 80% 수출(중국·미국·일본 등), 전방 다변화 진행
- 진출방안**
- 현지 주요 전자제품 OEM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품 공급망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수출 루트 확보
 - 고사양 제품을 필요로 하는 태국의 자동차 및 전자기기 제조사와 협력하거나, 연구개발(R&D) 기반으로 맞춤형 PCB 솔루션 제공
 - 한-아세안 FTA의 관세 혜택을 활용하고, 유해물질제한지침(RoHS)과 같은 규제 요건에 유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EV 포함)

- 선정사유**
- 태국은 ASEAN 최대 자동차 생산·수출 허브로, EV 정책 강화로 '26년 EV 수출 52,000대 목표
 - 외국 완성차·부품 합작투자(JV)에 세제 혜택 확대 적용 중
 - 태국은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릴 만큼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 허브이며, EV 정책(보조금·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전기차·친환경차 생산 확대가 본격화 중임. 이에 따라 부품 수요와 우리 기업의 협력 및 진출 기회 상승
- 경쟁동향**
- 현재 일본 업체가 내연기관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EV 부문은 중국·유럽 등 타국 기업의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 중임
 -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외부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현지 부품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이 ASEAN 시장 전체를 겨냥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
-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은 품질 신뢰도에 기반하여 EV 특화 부품(모터, 전력전자, 경량 소재)을 중심으로 현지 완성차 업체와 협업하는 전략 구축 필요
 - 또한, 태국 현지 생산기지 활용을 통해 관세 회피와 동시에 ASEAN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부품

- 선정사유**
- Reuters 보도에 따르면, EV 수출이 '25년 초 175% 증가, EV 정책 및 Euro6 배출기준 도입과 함께 EV 배터리·부품 수요 급상승 중
 - 우리 기업의 배터리 셀, 충전 인프라 관련 부품·기기에 대한 잠재력과 현지 신뢰도가 높음
 - 태국 정부의 EV3.5 정책에 따라 배터리·충전 인프라 투자가 '27년까지 40억 달러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배터리 전기차(BEV) 등록 비율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음
- 경쟁동향**
- 중국 기업은 대규모 배터리 생산 및 충전 네트워크 확충에 앞서 있고, 일본·유럽 기업은 동부경제회랑(EEC)을 거점으로 장기 투자 중
 - 현지 스타트업 역시 IoT 기반 충전 관리·모바일 결제 솔루션 등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 중
-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은 배터리 셀·모듈 고도화 기술과 충전 인프라 운영 역량을 무기로 현지 업체와 합작·JV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태국 정부의 BOI 세제 혜택을 활용해 EEC 내 생산·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충전 플랫폼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전략이 유망

캔·가공 과일 및 채소류

- 선정사유**
- '25년 태국 수출 통계에 따르면 과일 및 채소 기반 가공식품 수출이 전년 대비 +22~28% 증가, 특히 통조림·농축액 중심 성장률이 높음
 - 한국의 프리미엄 과일 기반 제품(농축액, 건강 스낵 등) 수출 전략에 유리
- 경쟁동향**
- 현지 대형 가공사·유통(PB 포함)이 과일 통조림·주스에서 강세, 편의점·대형마트·온라인 경쟁이 심화
 - 열대과일(파인애플·망고 등)은 현지 원가 우위, 비열대 원료는 수입·OEM 병행 구조
 - 저당·무가당·클린라벨 제품이 빠르게 확대, 성분·표시 규정 준수 경쟁 강화
- 진출방안**
- (제품) 저당·무가당·비타민 강화·원물감 강조 포물러, 파우치·컵 등 휴대형과 리테일 전용 사이즈 병행
 - (공급) 현지 OEM/위탁가공+할랄·태국어 라벨 선반영, 원산지 FTA 활용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채널) 편의점 한정 SKU로 파일럿 → 모던트레이드·온라인 확장, K-디저트/음료 조리 키트로 차별화

가공 식품 및 냉동 닭고기·가금류 제품

- 선정사유**
- '25년 브라질 조류독감 사태로 태국이 최대 수혜 가능성; 최대 4,000만 톤 시장 일부 확보 가능, 약 17억 달러 매출 여지
 - 태국은 통합 사육-가공-수출 체계와 할랄인증 기반이 견고, 즉석요리(RTE/RTC) 수요 증가
 - 편의점 간편식·단백질 스낵 확대로 양념구이·닭가슴살 등 고부가 가공품 수요 확대
- 경쟁동향**
- CP·Betagro·GFPT 등 대형 통합업체 주도, QSR·편의점 PB 납품 경쟁 치열
 - 검역(OPS)·잔류물질·온도관리 기준 강화, 사료·물류비 변동이 원가 압박 요인
 - 수입 완제품은 제한적, 현지 OEM·PB 형태 진입이 일반적
- 진출방안**
- (제품) 한식 양념 RTE/RTC, 고단백·저지방 라인업, 무항생제·할랄 표기 강화로 프리미엄 포지셔닝
 - (채널) 편의점·QSR·외식 B2B 규격 개발 → 리테일 소포장 병행, 시식·조리 영상 등 사용성 강조
 - (운영) 통합업체와 OEM/JV로 원가·검역 리스크 관리, DLD·할랄·콜드체인 인증 선확보

스마트 기계·산업용 자동화 장비 및 전자부품

- 선정사유**
- 전자 수출 규모는 '23년 기준 454억 유로, 전체 수출의 약 15%에 달함
 - 공장 자동화·스마트 팩토리 수요 확대 추세
- 경쟁동향**
- 일본·유럽계는 고정밀·고신뢰 공정 중심, 중국계는 가성비로 중저가 확대. '25년 상반기 FDI 신청액 : 일본 498억 바트(자동차·E&E), 중국 1,022억 바트(E&E·화학)로 제조 주도
 - BOI 현지조달 기준(스마트 가전·전자 40%, BEV 40% 등)과 TISI 의무표준 147종('25년 7월), 전자레인지는 의무표준 '25.12.30. 시행으로 현지 서비스·부품 재고 요구가 상승
- 진출방안**
- (제안) “장비+제어SW+현장통합” 패키지로 파일럿 라인 구축
 - (운영) 리스/렌탈·OPEX 모델, 예비부품 현지창고·24시간 A/S로 신뢰 확보, 작업자 교육·전환 프로그램 제공(프로젝트 다변화 대응)
 - (규제) TISI 전기안전·통신 인증 사전 취득, BOI 로컬콘텐츠 요건(예: E&E 40%)을 설계·부품 조달에 반영, 현지 SI와 공동 영업·설치로 리스크 최소화



교육(에듀테크)

- 선정사유**
- 태국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는 '24년 기준 약 5억 5,6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4.5% 성장하여 '33년 약 38억 8,500만 달러 전망
 - 팬데믹 이후 교육 분야 디지털화 가속,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및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
- 경쟁동향**
- 대입 관련 교육서비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주요 언어학습이나 코딩 등 특정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강좌 인기
 - 미국, 유럽 등 서양권 기업이 강세이나, 한국어 열풍과 더불어 비상교육, 타임교육, 메가스터디 등 우리 기업 진출 활발
- 진출방안**
- 정부 정책 및 관심 분야(디지털 인재 육성), 현지 학교 및 교육기관과 협업(CSR 등)하여 시장성 확인 후 진출
 - 교사, 학생 등 대다수의 플랫폼 이용자는 영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어 작업 및 현지 선호를 반영한 현지화가 중요하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 구축 필요

의료기기 및 헬스테크 장비·소프트웨어

- 선정사유**
- 태국 내 의료관광 확대, 보건 인프라 발전, 고령화·만성질환 대응 수요 증가 및 실버케어 수요의 가파른 증가 추세
 - 태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24년 기준 약 22억 3,000만 달러, 디지털 헬스 시장은 약 38억 2,000만 달러로, '25~'30년 연평균 성장률 22.7%로 급성장 중
- 경쟁동향**
- 현재 태국 의료기기 시장은 Medtronic, Johnson & Johnson, GE Healthcare, Philips, Stryker 등 글로벌 기업이 강세이며, 특히 진단·이미징 기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한편, 규제 측면에서는 태국 FDA의 라벨링·문서 기준 강화, AMLD(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기준 도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진입 경쟁의 체계화 진행 중
-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은 고도화된 헬스테크 솔루션(웨어러블, 원격의료 시스템, AI 진단 도구)과 의료기기 기술에 우위를 지님
 - 태국 내 현지 인증을 돕는 공식 현지 에이전트 또는 JV 체결, 그리고 ASEAN 규격 대응 라벨링·등록 시스템 구축, 공공 병원 등 대형 조달망 접근 전략 병행 필요

AI 서비스

- 선정사유**
- 방콕포스트(Bangkok Post)에 따르면, 태국 무역 대표가 '25년 수출 유망 분야로 디지털 경제 및 스마트 기술을 명시함. 여기에는 스마트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AI 솔루션, 데이터센터, IoT 플랫폼 등이 포함됨
 - 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이커머스 확대, ASEAN 디지털 허브 추진 전략에 따라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됨
- 경쟁동향**
- 글로벌 대형사 중심 투자 확대 : '25년 1~5월 데이터센터 승인액이 27억 달러로 급증, 틱톡 모기업의 88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까지 발표되며 인프라 경쟁이 심화
 - 로컬 사업자 역량 강화 : CP그룹-GIP의 '10억 달러+' 데이터센터 투자로 트루IDC 등 국내 사업자 증설·운영 경쟁력 상승
 - 규제 집행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PDPA) 위반 과징금·형사 처벌 사례가 '25년에 다수 제시되며, 클라우드·AI 서비스의 준법 부담이 커짐
- 진출방안**
- 데이터 거버넌스 우선 : PDPA·보안 요건을 전제로 현지 데이터센터(로컬 파트너) 활용, 민감정보는 분리 저장·암호화로 신뢰 확보(투자·승인 확대 흐름 활용)
 - '태국어+업종 특화' 모델 : 금융·보험·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밀도가 높은 분야에 콜센터 자동화·사기탐지·문서 요약 등 즉시 효과형 솔루션 제안
 - 단계형 사업화 : 파일럿 → KPI(처리시간·정확도·CS비용) 검증 → 확장 구조, 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와 공동 제안해 입찰·조달 가속

스마트 물류·콜드체인 장비 및 IoT 솔루션

- 선정사유**
- 이커머스 성장과 함께 라스트마일 물류·콜드체인 자동화 수요 증가 예상
- 경쟁동향**
- 전자상거래 급증 : 하루 700~800만 개 택배 처리 규모로 성장, 이커머스 확대로 라스트마일·풀필먼트 자동화 수요가 동반 확대
 - 항만·허브 고도화 : 항만청(PAT) '25년 실적 호조로 설비·운영 투자 여력 확대, 항만·내륙거점의 디지털화 수요 지속
 - 통관 전자화 확대 : 관세청 '국가단일창구(NSW) 단일제출' 고도화, 국경 원스톱서비스 등 '25년 디지털 통관 인프라 확장
- 진출방안**
- 규제·신뢰 대응 : 제품안전·통신 인증과 더불어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을 반영해 추적·모니터링·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기본 탑재
 - 현지화 운영 : 리스·운영비 모델, 예비부품 현지 재고·24시간 A/S·교육 패키지로 가동률 보장, 로컬 시스템통합업체와 공동 영업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태국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전기차	전기차(모터쇼 연계) 사절단	3월
ICT	스마트시티+에듀테크 데이	상반기
화장품	2026태국 방콕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Cosmoprof CBE Asean Bangkok)	6월/QSNCC
식품	서울푸드 인 방콕 (Seoul Food in Bangkok)	8월/QSNCC
의료	스마트의료 진출사업	하반기
기계	METALEX(기계전시회)	11월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방콕시장·시의회 선거	상반기 예상	방콕특별법상 임기 4년(직전 선거 2022.5.22.) → 2026년 전후 실시, 공식 공고 대기.
하원 총선(조기해산 시)	-	하원 임기 4년(직전 총선 2023.5.14.). 조기 해산 시 왕실 칙령으로 선거일 지정.
ASEAN 정상회의	-	ASEAN 공식 의장국 로테이션에 따라 2026년 필리핀 주최. 세부 일정 추후 고시.
APEC 정상회의	하반기 예상	의장국 : 중국, 세부 일정은 APEC이 추후 공지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Thailand FTA 발효 대기중	발효 대기	2025.1.23. 서명 완료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SEAN Sustainable Energy Week 2026(에너지·환경)	7.1.~3.	QSNCC, 방콕. 주최측 공식 공지.
ProPak Asia 2026(가공·포장)	6.10.~13.	
INTERMACH 2026(기계·제조)	5.6.~9.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장철순	차장	방콕무역관	66-2-035-1545	bionda8721@kotra.or.kr
2	박슬기	차장	방콕무역관	66-2-035-1531	seulgi_park@kotra.or.kr
3	최정림	과장	방콕무역관	66-2-035-1550	jungle@kotra.or.kr
4	박원주	과장	방콕무역관	66-2-035-1540	wonjoopark@kotra.or.kr

2026 태국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44-7 (95320)